ISSN 1277-1489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 연구

2015. 06. 제 80호

특.별.기.획.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Ⅱ)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동아출판

두클래스는 초중고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
두클래스

DoUclass

교실 수업 자료의 모든 것, 두클래스

- 풍부한 학습자료
- 쉽고 편리한 스마트 수업

두클래스란? 선생님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편리한 스마트 수업	풍부한 학습자료 제공	대상 : 초·중·고등 선생님
• 집중이수제 취지에 맞는 수업 지원 • 수준별 학습 가능 • 방과후 수업 대응 가능	• 교실 특성에 맞춘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 제공 • 선생님의 개인별 맞춤수업 교안 작성 가능 • 다양한 수업 모형 제공	• 교과서, 지도서, 이미지, 멀티미디어, 동영상 및 사전 13종 검색 가능 • 문제은행 서비스 제공 •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과목별 콘텐츠 제공	• 초등: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독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 • 중등: 전과목 • 고등: 국어, 문학, 영어, 실용영어,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 한국사, 한문, 기술·가정,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화, 진로와 직업 등

www.douclass.com

목 차

교과서 연구
계간지
2015년 여름
통권 제80호

권두언

04 "교과서"라는 베스트셀러 / 이지한

특별기획 ·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Ⅱ)

10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 / 홍원표
15 미술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 / 김선아
20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체육 교과서 / 이옥선
26 음악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 / 민경훈
31 기술 · 가정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 탐구 - '기술'을 중심으로- / 이춘식
37 초등 수학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 / 강 완

정책해설

42 시 · 도교육청의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송낙현

현장교육

46 배움과 체험으로 하나 되는 다문화 어울림 교육 / 황승택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52 '광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김원길

국제동향

56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 핀란드의 학교 교육(대담) / 김정영

교과서 편집자의 변

61 좋은 교과서가 되기까지 / 김경운

연구논문

65 학습자 주도적 탐구형 세계지리 교과서 / 손명철

명사 초대석

76 교과서와 씨름하며 인생을 배워오다 / 이규석

탐방 -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81 "출판은 국민의 교양을 높이는 제2의 교육이다." / (주) 교문사 대표 류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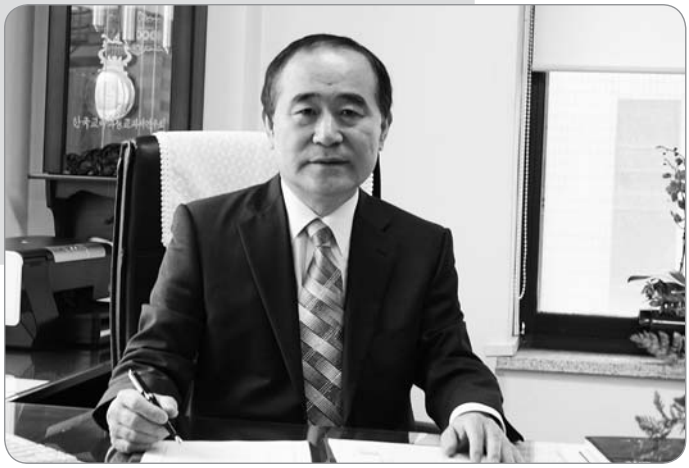
정책자료

86 검 ·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교육부고시 제2014-70호)
90 '검 ·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예고(교육부공고 제2015-49호)

94 **교과서 정보 센터(TIOS) 안내**
95 **교과서정보관 원문 이용 안내**
99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100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02 **원고 모집**

| 발행일 · 2015년 6월 1일 **| 등록번호** · 서초 바 0006호 **| 발행인** · 이지한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 김대원, 김병규, 김윤기, 김정호, 이화성, 홍후조, 홍미화 **| 편집기획 간사** · 유순기, 변자정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우137-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 전화 · 02-2651-1953, 02-6206-6357 **| 팩스** · 02-2651-1982 **| e-mail** · editor@textbook.ac http://www.textbook.ac
| 표지디자인 · 김윤철 **| 디자인** · 신성인쇄상사 02-2272-0345 **| 인쇄** · (주)미래엔 02-3475-4092 **| 정가** · 3,000원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의 내용은 편집진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베스트셀러



이 지 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교과서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교과서는 국가의 운명과 발전을 담보하므로 어떻게 만들고 교육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기본 교재입니다.

교과서에 관한 뉴스는 자주 우리의 주목을 끌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역사를 왜곡 게재하는 일본 교과서 검정 뉴스입니다. 2005년 후쇼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 이후 일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 각료들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듯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은 의례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10년 전에는 한두 출판사에서 다뤄졌던 역사왜곡이 이제는 일본의 교육과정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모든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때맞추어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강도 높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의 근간 중 하나가 교과서이고,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 삽화, 사진 한 장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교과서의 중요성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저자, 출판사 이외에도 문부과학성 소속의 교과서 조사관들이 각 과목별로 배치되어 교과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과서 편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중추적으로 활동하며, 한번 교과서 조사관이 되면 다른 곳으로 전출되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교육부 편수국에서 교과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그 역할을 유지했었지만,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는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인원이 교과서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은 또 교과서의 발전을 위해 각 학교, 교과서 발행사, 교과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합니다. 문부과학성은 좋은 교과서 개발의 중심에서 정책의 구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교과서정보관에는 일본의 교과서 출판사인 제국서원에서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세계 30개국의 지리 교과서를 번역한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국서원은 현재까지도 지리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 교과서를 번역 출판하려면 상대국의 교과서 출판사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없으며, 자료를 전달하는 등의 상호 교류가 이뤄졌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 보급하기 위해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듯이, 좋은 교과서, 좋은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느 나라나 같습니다.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정책의 구현은 정부와 교육행정기관, 학교, 연구기관, 교과서 발행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앞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이러한 면에서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일본교과서연구센터'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교과서 관련 기초연구부터 수십 년 간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교과서도서관'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자료를 수집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교과서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가 빠르다 보니 교과서의 내용 수정 및 개편에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발행에 참여했던 전문 편집인의 이직이 잦다 보니 교과서의 질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 · 보급하려면 국가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편집 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교과서 전문 기관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인력풀로 관리한다면 교육의 근간인 교과서가 풍부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 ·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기관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정책 담당자들을 그렇게 바쁘게 했는지, 무엇이 출판사 관계자들을 그렇게 촉박하게 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라는 베스트셀러는, 나아가 교과서가 진정한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하려면, 개인이 혼자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만 의욕적으로 잘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분야의 협조와 철저한 준비 속에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교과서를 잘 만들 수 있는지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연구와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교과서연구』 발간, 교과서 도서관 운영, 교과서 수정 · 보완 온라인 DB 시스템 운영,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등의 중요한 사업들을 한층 수준 높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과서 관련 연구와 사업들을 우리 재단에 대한 신뢰로써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구재단이 한국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아낌없는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특.별.기.획.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Ⅱ)

지금까지의 내용 전달 중심 교육, 그리고 그런 교과서로는 이제 '승산'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이미 고전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지식의 양을 교과서라는 한정된 매체가 감당할 수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보다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를 안내해주는 데 중점을 두는 교과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그러한 학습을 지원하는 교과서를 강조하는 최근의 화두야말로 가장 적합한 연구 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본지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두 번째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여 2015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이어질 새 교과서 개발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특별기획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
- 미술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
-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체육 교과서
- 음악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
- 기술 · 가정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 탐구 –'기술'을 중심으로–
- 초등 수학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

홍 원 표
연세대학교 교수

1. 교과서는 여전히 중요한가?

혹자는 각종 시청각 자료와 디지털 자료, 인쇄 매체가 넘쳐나는 현 시대에 교과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좋은 학습 자료가 널려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지 굳이 전통적 매체인 교과서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이러한 반문의 핵심이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평가 기관 가운데 하나인 Cambridge Assessment의 Tim Oates(2014)에 의하면, 교과서는 현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아래의 표는 그가 2011년 TIMSS 자료를 바탕으로 영국과 싱가포르, 핀란드의 교과서 활용도를 분석한 것이다.

[표 1] 영국, 싱가포르, 핀란드의 교과서 활용도

단위: %

구 분		영국	싱가포르	핀란드
수학	수업의 주교재	10	70	95
	수업의 보조 교재	64	23	3
과학	수업의 주교재	4	68	94
	수업의 보조 교재	45	27	6

Oates, 2014, p. 7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

위의 표에서 Oates(2014)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영국 학생들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국가일수록 교과서 활용 정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주형미·양윤정·남창우, 2014),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교과서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교육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교육 문제는 교과서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 보급함으로써, 우리의 학교 수업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 없다.

2. 자기 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의 중요성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근대적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래 꾸준히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형 학습 체제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과서 완결형 학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이다(박소영 외, 2013; 주형미 외). 사실 자기주도학습은 최근에 떠오른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대한 체계적인 반성이 시작된 6차 교육과정부터 꾸준히 강조되어 온 지향점이다. '참고서 없이도 교과서만으로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과서,'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이동엽 · 남창우 · 박소영, 2014).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박소영 등(2014)은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 및 유지를 통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자원을 탐색하며, 학습 전략을 선택 및 수행하고, 학습 결과물을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는 학습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p. 33). 말하자면 학생들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지하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다양한 인지 · 행동 · 정서 조절을 통해 학습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다(송인섭, 2010).

박소영 등(2013, p. 34)은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에 적합한 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주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즉,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 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교과서이다.
②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즉, 스스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교과서이다.
③ 학습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즉, 학습 욕구를 유발하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과서이다.
④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교과서가 필요하다.

위의 내용만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지금쯤은 상당히 자기주도학습에 적합한 교과서의 모습에 근접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자기주도학습이 무엇이고, 이에 적합한 교과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그에 맞게 교과서를 바꾸려는 노력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교과서가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전보다 다채롭고, 글씨도 커졌고,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출판사들의 경쟁과 노력도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교과서가 개선할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교과서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필자가 최근에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

생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 교과서 처음 보면요. 아직 선생님이랑 먼저 진도 나가기 전에 하면 무슨 내용인지도 갑갑하고. 아 이걸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갑갑하고, 그래서.. 제가 이해력도 부족한데.. 이것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너무 갑갑하고. 갑갑한 것 같아요."

"일단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면요, 교과서에서만 있는 정도를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요. 선생님이 정해 놓은 것만, 이것만 알아둬 이것만 알아두면 돼, 이렇게 궁금증을 제한하다 보면 따라갈 수는 있죠. 그냥 읽으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져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첫 번째 학생이 교과서가 자신을 '답답하게' 만든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면, 두 번째 학생은 교과서를 갖고 시험 준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금증'을 채우고, 내용을 이해하기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 교과서를 갖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박진용 등(2011)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어와 과학 교과서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어 교과서만으로 충분하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혹은 그 이하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과서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과서의 내 · 외형적 모습이 바뀌었지만, 최종 독자인 학생들은 여전히 교과서만 갖고 공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자기주도학습적 학습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과제들

그렇다면 교과서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교과서 완결형 학습체제가 뿌리내리도록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있지만, 몇 가지 방안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완결형 학습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 완결형 학습을 교과서만 갖고 공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 사회는 무수히 많고도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와 상상력을 교과서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교과서 완결형 학습은 교과서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교과서 자체가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self-contained) 학습 교재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말하자면 적어도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동안은 다른 교재가 필요 없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학생들 역시 이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교과서 내용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 교과서가 불완전하기 그것만 가지고는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서 완결형 학습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사교육비 감축에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는 것은 교과서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교과서를 만들면 사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사교육 축소는 교과서 완결형 학습의 자연스런 결과이지 그 자체가 일차적인 목적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학생들이 교과서만 갖고도 충실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참고서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 개선의 일차적 목적은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 감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킬 위험이 있다.

교과서 완결형 학습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자기 주도적 학습에 적합한 교과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변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설명과 학습 활동을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교과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반대로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전자가 학습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라면, 후자는 너무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양극단을 조화시키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에 적합한 교과서를 만드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소수의, 엄선된 핵심 개념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설명과 예시, 활동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가 좀 더 분명해지고, 이를 통해 교과서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모습은 현재 진행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원리 혹은 빅 아이디어(big idea) 중심의 학습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교육부, 2014).

둘째, 연계와 흐름이 살아 있는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서, 연계는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과의 연계는 자기주도학습에 필수적인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현상, 사례, 경험과 이어져 있을수록,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흐름인데, 여기서의 흐름은 교과서 단원 혹은 내용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이전에 배운 것, 현재 배우고 있는 것, 앞으로 배울 내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을 때, 학생들의 이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부분적인 것은 파편적이고, 파편적인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주도학습에 적합한 교과서를 위해서도 학습자가 이전 단원 또는 이전 학기(학년) 학습 활동 계획을 되돌아보고, 현재 학습 활동과 관련지어 보거나 비교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소영 외, 2013). 따라서 단원 내 혹은 단원 간에 연계와 흐름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하나의 체계 혹은 전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사례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자료와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으로써, 서책형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책형 교과서는 시간적 지체라는 근본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과서를 개발할 당시에는 최근 자료이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때에는 이미 몇 년이 지난 정보나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게와 비용, 두께와 같

은 제약 때문에 서책형 교과서에 다양하고 충실한 학습자료를 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서책형 교과서만 갖고서는 자기주도학습에 적합한 충실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관, 혹은 출판사 차원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함으로써 서책형 교과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공은 교육과정이며, 실용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라는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4). 2015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세종시: 교육부.
- 박소영, 김혜숙, 남창우, 윤지훈, 이동엽(2013).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일반 모형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 박진용, 신성균, 함승연, 이영아, 남창우, 손예희, 신명경, 김민정(2011).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 송인섭(2010). 현장적용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서울: 학지사.
- 이동엽, 남창우, 박소영(2014). 자기주도학습 지원 교과서 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30(3), 560-599.
- 주형미, 양윤정, 남창우(2014).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현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 Oates, T.(2014). Why textbooks count. London: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s.

미술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

김 선 아
한양대학교 교수

이제까지 미술 교과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그다지 폭넓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술 학습에서 자기 주도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보다는 이것이 미술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술 활동은 감각, 감정, 인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체험적 교과로서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제작하고, 의미를 만들도록 초대하는 데에 용이하다. 특히 표현 영역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변형하고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과 재료를 다루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술 수업에서 교사는 탐구할 개념, 기능, 재료 등을 안내하고 제안할 뿐, 실제로 작품의 주제 및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시각적,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완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 전반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은 미술 교과에서 자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믿어왔던 미적 경험에서의 학습자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술 교육의 동향을 고려할 때,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가? 미술 학습에서 학생들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 혹은 환경은 무엇인가? 본 소고에서는 교과서를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고, 미술 교과의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미술 교과에서 교과서가 가지는 특수한 위치에 대하여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술 교과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자율성을 전폭적으로 허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페이지를 따라 수록된 모든 내용의 진도를 순차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각 거리 혹은 활동 안내, 즉 자원(resources)으로서 교과서가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라는 개념은 미술 교과서 개발의

측면에서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는 유연한 교수 · 학습의 구조를 고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이를 위한 유용한 개념을 제공하는 교수 · 학습 방법을 살펴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술과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흥미와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 방향은 미술과 교육과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홍후조 외(2013)는 우리나라 초 · 중등 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중반 ①주입식, 설명식 교사 주도 수업, ②지필고사 중심의 평가 방식, ③사교육의 선행학습으로 인한 의존 학습 등에 대한 당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이미 7차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 학습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 배움의 과정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이후 20여 년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열한 학교 수업에 대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학습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은 교과 내용의 체계화를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습 활동으로 변환하여 구체화하는 교과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비구조화된 내용 구조를 갖는 미술 교과의 특성 상 '어떻게 학생들 스스로 미적 경험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가 성공적인 수업의 열쇠가 된다.

비구조화된 교과라는 특성은 미술에서 점차 강조되는 '문화'의 의미를 생각할 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술은 기본 이론을 배우고 표현 기능을 숙련하는 것을 넘어서 앎의 방식이자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Sullivan(2004)은 미술을 비평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주변의 문화적 환경을 비판, 해석, 변화시키는 문화 주체로서 학생들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발견한 사회문화적 이슈와 미학적 질문을 수업의 중앙에 위치시키는 학습자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한다(Ballengee-Morris & Stuhr, 2008). 더 나아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회참여미술에서는 개인과 집단, 미술과 공동체, 예술가와 관람자 간의 유기적 연결과 상호작용을 강조한다(Helguera, 2011). 특히 사회적 변화를 위한 공동의 협력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서 미술은 핵심적인 소통의 매개가 된다. 즉 미술의 성격 자체가 문화적 도구로서 다양한 경계를 넘어선 참여와 문제해결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 교육의 동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술 학습에서 능동성과 자기 주도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 ·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미술과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

전통적으로 미술과의 교수 · 학습방법은 직접 교수법, 귀납적 사고법, 창의적 문제해결, 반응중심 학습법 등의 범위에서 소개되어왔다. 홍후조 외(2013)는 그간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논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인지적인 측면과 자기경쟁력 강화만을 강조한 나머지 상호협력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미술과에서도 보다 상호적이고 협력

력인 교수 · 학습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의 책임성을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고, 과정과 결과를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해 갈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문제기반학습은 미술과에서 교수 · 학습 방법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에 유용한 개념을 제공한다. 기존의 창의적 문제해결이 '창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문제기반학습은 '문제'가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진다. 즉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 자기주도 학습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강인애, 2008). 여기에서의 문제는 삶과 관련성이 있는 실제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교수 · 학습의 절차 또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①문제 만나기, ②문제 정의하기, ③사실 수집하기, ④가설 설정하기, ⑤ 조사하기, ⑥문제 바꾸어 표현하기, ⑦대안 만들기, 마지막으로 ⑧해결책 지지하기의 단계로 진행된다.

프로젝트학습은 미술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수 · 학습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수행을 통해서 배우는(learning by doing)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학습의 특성이 미술과의 성격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 세계(reality)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하는데(고흔석, 2013),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느낌, 경험, 기억 등을 주제로 미술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미술 학습 과정을 구조화하는 방법으로서 프로젝트학습의 개념과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프로젝트의 설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서윤경, 고명희, 2013). 이의 구성 요소는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좋은 주제문과 발문,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선택할 수 있는 요소, 폭넓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 능력과 기술,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상황과 실제적 탐구 등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돕는 미술 교과서의 구성 방향

미술 교과서는 대부분 도판으로 채워져 있어 별다른 구조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저자 혹은 출판사마다 조금씩 특성을 살려 차별화하고 있으나, 대체로 한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2가지 차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사가 개정된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목차의 구성이나 학습 목표 및 평가 기준의 요소에서 반영된다. 특히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핵심 개념의 경우 이를 교수 · 학습 과정으로 풀어 실제적 활동으로 가시화하여 제시하게 된다. 또한 내용 체계에서 통합되거나 비중이 줄어든 개념의 경우 기존의 학습 활동과 연계, 통합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차원의 내용 요소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들을 구체적인 도판과 활동, 관련 자료를 통하여 수업의 형태로 변환한 것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계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반면, 미술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두 번째 차원은 실제적으로 교수 · 학습을 촉진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한 구성 요소들은 ①동기 유발을 위한 도판과 발문, ②학습 개념의 이해를 위한 도판과 해설, ③학습 개념의 적용을 위한 창의적 표현 활동, ④학습의 심화 및 확장을 위한 용어해설, 개념 정의, 작가소개 등의 코너 등을 포함한다. 현행의 미술 교과서를 자기 주

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개선한다면 이러한 4가지 요소가 가지는 성격과 제시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단원의 도입에 주로 제시되는 ①동기 유발을 위한 도판과 발문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기반 학습의 과정을 고려할 때 문제 만나기 혹은 문제 정의하기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학습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도판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단원의 주요 내용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술에 대한 지식, 상식, 혹은 편견 등에 도전이 되는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미술의 학습주제-실생활을 연결지어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 되는 ②학습 개념의 이해를 위한 도판과 해설은 미술 교과에 있어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 즉 학생들이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미술의 개념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은 학생들이 표현과 감상을 통해 의미를 만들고 사고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하는 실천적 지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제시된 내용 요소를 단순히 상세화하여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미술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되고 절대적인 지식, 이론으로서 미술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심화된 조사와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미술 교과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단원의 ③학습 개념을 적용한 창의적 표현 활동의 예시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수록된 표현 활동을 보면서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적이고 수행적인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순차적 과정으로 정연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표현 활동의 결과물인 학생 작품을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자기표현에 대한 소유의식(ownership) 혹은 자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창의적 표현 활동은 가능한 한 다양한 경로와 변형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결과물보다는 과정적 지식이 구체화되어 교사가 표현의 과정을 안내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다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미술 교과서에는 ④학습의 심화 및 확장을 위한 용어 해설, 개념 정의, 작가 소개 등의 코너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칫 부가적인 요소로 소홀히 여겨지기 쉬우나 미술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의 정의, 사례 등을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한 내용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유용한 방식으로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현행 교과서의 경우 형식적이고 사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술의 지식이 어떻게 읽히고 이해되며 활용될 것인가'를 온전히 학생들의 시각에서 다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학생들이 읽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술의 지식을 학생들의 삶과 문화 안에서 재기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교과서 구성 요소의 개선 방향은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안내하며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 환경으로서 교과서가 어떤 방향에서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도판과 상세화된 설명보다는 단원의 핵심 개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탐구해 갈 수 있도록 분석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학

습 과정에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교사서를 개발하는 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을 제안한 것이다.

김선아(2006; 52)는 "고정적인 사실과 정보의 집합체가 아닌 교육 현장의 의사소통을 돕는 매개체로서 그리고 지식의 전달이 아닌 경험의 조직을 위한 안내로서 교과서의 기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소고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미적 탐구를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교과서,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참여와 소통의 교과서, 표현과 사고의 과정적 지식을 담은 프로세스 중심의 교과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새롭게 기획되는 미술 교과서에서 도전하고 변화하는 미술 교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소개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한국조형교육학회 회장으로 미술교육 연구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구 관심 분야는 다문화미술교육, 융복합 교육, 질적 연구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인애(2003). PBL의 이론과 실제. 서울:문음사
- 고흔석(2013). 사회참여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중심 프로젝트학습 실천 방안. 사회과교육, 52(2), 149-171.
- 김선아(2006). 미술교과서 다시 읽기: 교과서에 대한 사회문화적 비평. 조형교육, 28, 35-55.
- 홍우조 · 백혜조 · 고영희(2013).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26(1), 181-200.
- Ballengee-Morris, C. & Stuhr, P. L. (2008). Multicultural art and visual cultural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 Helguera, P. (2011). Education for socially engaged art. NY: Jorge Pinto Books Inc.
- Sullivan, G. (2004). Critical thinking and cognitive practices in art education. KoSEA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체육 교과서

이 옥 선
서울대학교 교수

1. 체육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

급속한 변화와 지식의 팽창은 현대 사회를 수식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의 하나는 바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제반 학습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배움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을 학습자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의 틀이 자리 잡히기 이전에 많은 이들은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누구나 사용하여 왔던, 새로울 것이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제 7차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Knowles(1975)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세워 실행한 다음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때 학습의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학습자 자신에게 있다고 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Long(1992)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지도와 관계없이 학습자 스스로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학습에 임하는 일련의 초인지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때, 학습의 여건이 정규교육이든 비정규교육이든 혹은 개별화된 학습이건 집단 학습이건 간에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계획하며 자료 및 자원을 동원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지칭하고, 학습의 시작부터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학습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자유의지와 자율적인 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학습에서의 자기 주도적 성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의욕을 갖고, 학습자 스스

로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한 후 학습 결과를 점검하여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학습을 말하며, 이러한 순환 과정 속에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교사가 주도하여 수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평가하는 교사 주도 학습과 대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최근 들어 전 교과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고, 체육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관심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체육 교과에서 바라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는 어떠할까? 이를 협의적 측면과 광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체육수업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들 수 있다. 체육 수업 시간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세워 성실히 도전하고 그 달성 여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평가하고 돌아보며 재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체육 수업의 전 과정에서 조력자 내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광의적 측면에서 체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은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주도적인 신체활동 참여로 확대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좁게는 체육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까지도 자기 주도적 학습에 포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학교체육은 학습자들이 독립적인 체육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체육 교과서의 모형

협의적 측면에서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체육 수업 참여, 나아가 광의적 측면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능동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육 교과서 또한 자기 주도적인 수행을 돕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들이 자기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자율적으로 체육을 즐기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인 교사 주도형의 교과서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워크북 형식의 교과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체육 교과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과서관이 필요하다(배영주, 2009).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Garrison (1997)은 학습에서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한 자기 주도적 학습 통합모형을 제시하면서, 교수-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외적 관리(상황적 조절), 내적 통제(인지적 책임감), 동기적 문제(학습출발점, 학습동기)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자기 관리, 자기 통제, 학습 동기의 세 가지 구인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개념화하였다. 이때, 자기 관리는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해 가는 학습 과정 활동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자기 통제는 학습의 성과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이며,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하며 인지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작용하는 힘으로, 출발점 동기와 학습과제를 지속하는 동기로 구별하였다. Baumert와 동료들(1998)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인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동기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즉, 교육은 동기를 포함한 인간의 심리적 성향을 개발하고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성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지속적인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을 학습전략과 동기유발, 목표지향성, 자기인식, 자기통제, 사회적 능력 그리고 학습에 대한 잠재력으로 구성된 다면적 구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체육 교과서에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동기화, 주체성, 상호작용, 자기 성찰의 원리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첫 단추는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동기화에 있다. 체육 교과는 물론이고 모든 수업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동기유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의 동기 유발은 학습자가 의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동력이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체육 교과서는 신체활동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입 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나 삽화 내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로 관련 동영상이나 영화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보다는 여러 다채로운 스포츠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제시된 활동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될 때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스스로 취사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체성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체육 수업에서 학습자는 신체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신체활동에 임하면서 익힌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신체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이 단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수준을 진단하는 장면, 자신의 수준을 또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장면,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장면, 스스로 신체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장면, 스스로의 성취와 결과를 돌아볼 수 있는 장면,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장면 등이 교과서 곳곳에서 펼쳐 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자기 주도적 체육 학습이라고 해서 학습자 스스로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의미 구성에 있어 개인의 영역을 뛰어 넘어 동료 학습자, 교사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은 물론이고 새로운 개념과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은 의미의 재구성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대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교과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과서 내에 대화형 삽화를 넣거나, 교과서의 좌우 여백인 날개에 교사 도우미 내지는 학습 도우미를 배치해 상호작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 해결로 이끌 수 있는 질문이 지시 제시 형, 단서 제시 형, 사고 확장 형, 정답 제시 형 등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개별학습뿐만 아니라 팀 학습과제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성찰이란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학습의 전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잘 안 되는 동작을 반복 연습을 통해 숙달시켜 극복해 나아가는데 있어 기본이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있어 힘을 실어 준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교과서 곳곳에 계획, 실행, 평가에 걸쳐서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이는 새로

운 계획으로 다시 이어질 필요가 있다.

3.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지도 방법

이러한 자기 주도적 교과서와 더불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지도 또한 요구되는데, 체육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을 이끄는 추진력으로 정의된 학습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동기는 흥미와 같은 내적 요소에 의한 내재적 동기와 외적 보상에 의한 외재적 동기가 있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이러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학습자들이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습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왜 배워야 하는지와 무엇을 배우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한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내용을 왜 학습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간단한 만화 형태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친근한 삽화로 이해하기 쉽게 제시된다면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아와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자신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신체활동과 관련한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달리기, 던지기, 뛰뛰기, 수영과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FMS, Fundamental Motor Skill)이라는 신체활동의 핵심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평생토록 스포츠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체육 수업에서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전에 배운 내용과 연관 지어 배운 내용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의 단계에 맞으면서 이러한 FMS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러한 FMS 증진을 위한 방법이 단조롭고 재미없는 훈련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즐거운 놀이나 게임 속에서 이러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학습자가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 능력이나 기술을 발전시켜 놀이와 스포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배운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펼쳐지는 놀이와 스포츠 상황에서 적극 적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와 스포츠 속에서 학습자들은 배운 능력이나 기술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잘하기 위한 동기 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과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연습하여 극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의 성취와 결과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학습했는지를 학습자 스스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나 기술을 잘 파악하고 습득했는지, 핵심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며, 관련된 다른 내용을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모르는 부분을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밖에서도 학습자 스스로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협의적 측면에서는 학교 체육 수업에 국한되지만, 광의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주도적 체육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일상생활로 전이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시설은 물론이고 다양한 지역 사회의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를 찾는 방법, 꾸준히 즐겨 한 분야의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4.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체육교사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워크북 형식의 교과서가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또래와 비교하여 자신의 수준을 진단하고, 주어진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선택 과제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취사선택하고 이를 개별적 또는 협력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스스로 돌아보고 재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교과서로 구현한다면 학습자들이 교과서의 친절한 안내 속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동시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내지 전략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체육교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체육교사는 학습 주도자가 아닌 학습 조력자 내지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준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선택하고 펼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며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결과와 성취를 돌아보고 새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멀리 떨어져서 혹은 가까이 붙어서 학습자들을 살피며 조력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교사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유추해야 할 것까지 모두 가르쳐 주어 학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미 구성의 촉진자로서 교사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질문과 발문을 통해 효과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학교 체육수업에서 수업의 시작은 학습자가 아닌 교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교사야 말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면 그러한 수업이 전개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사들의 교육 철학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 현직교사교육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배영주(2009). 자기 주도 학습과 구성주의. 서울: 원미사.
- Baumert, J., Fend, H., O'Neil, H. F., & Peschar, J. L. (1998). *Prepared for life long learning: Frame of reference for the measure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as a cross-curricular competence (CCC) in the PISA projec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Garrison, D. R. (1997). Self-directed learning: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Adult Education Quarterly, 4*8(1), 18-33.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New York: Association Press.
- Long, H. B. (1992). Philosophical, psychological and practical justifications for studying self-direction in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Application and research,* 9-24.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스포츠 교육학(체육교육과정 및 교수법)과 청소년 스포츠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음악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

민 경 훈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1.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개념

자기주도학습은 성인 교육의 장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은 학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노울즈는 자기주도학습을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확보하며,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 실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배영주, 2005: 40).

2. 음악 교과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필요성

수학이나 영어 등의 교과와 관련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음악 교과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나 음악이 가진 특성이나 음악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자기 주도적 학습은 음악 학습에서 매우 필요한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음악 교과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 차가 크게 나타난다. 음악적 능력은 가정환경이나 음악교육의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제대로 음악교육을 받은 학생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악보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음악적 능력의 차이가 심한 학생들이 같은 학급에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습자들을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수업을 진행한다면, 많은 학생들은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학습 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음악수업에서는 이

러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에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개별화된 학습을 실행해나가기 때문에 다인수 학급이라는 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학습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음악은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대상으로서 객관화될 수 없으며,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대상으로서의 음악을 지도할 때,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개별 학습자의 '심미적 경험'이다. 심미적 과정과 체험의 결과는 개개인마다 매우 주관적으로 나타나므로,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음악적 능력의 표현이나 심성의 계발 양상도 학습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종소리'라는 단조음악을 감상한 후에 어떤 학습자는 "곡이 슬프고 우울한 느낌을 준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고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때 교사는 단조음악이 주는 느낌을 한 가지 관점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들마다 심미적 경험을 통해 나타난 독특한 결과들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는 자기 나름의 음악적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 표현한 것들을 존중받음으로써 자신의 음악세계를 풍부하게 키워 나가게 된다.

셋째, 음악교과는 미적 감각에만 의존하는 과목이 아니라, 추론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는 논리적인 과목이기도 하다. 음악개념은 사람으로 하여금 음악에 관해 음악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고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음악적으로 음악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건이다(이홍수 1990: 150). 그러므로 학교는 학습자가 음악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폭넓고 다양한 음악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다양한 음악체험을 통해 음악개념을 형성하게 되면, 그 개념은 다음 경험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이는 또 다시 처음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변화 · 확대시켜 준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악개념의 성취에 있어서 학생들의 개인차가 무척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결과에서도 학교교육에서 학습부진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교과로 음악이 매우 높은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56).

위와 같은 결과들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져 온 교사주도의 수업방식이 학습자의 음악개념 형성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다인수 학급이라는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음악개념은 주로 교사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지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음악개념은 주입식, 암기식으로 학습되는 것보다, 학습자 스스로의 독자적인 시도에 의해 마음속에 새로운 내적 구조가 형성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학습자가 다양한 음악경험을 통해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며 사고하면서 음악개념과 자신을 의미 있게 연관 지을 수 있을 때 음악의 개념화가 더욱 명료하게 이루어진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주체가 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음악개념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 주입식으로 학습했을 때보다 음악개념의 습득에 더욱 효과적이다.

3.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의 구성 원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의 구성 원리

-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학습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선택적인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
- 학습 과제가 학습자의 환경과 구체적인 친밀성을 가지는 것,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학습자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학습자가 반성적 사고과정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학습내용은 학습자의 확산적, 개방적 사고와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제중심으로 구성되고 문제해결과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표 2]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점에서 본 현행 음악 교과서의 방향

단계	음악 교과서의 방향
1) 학습환경 설정 및 학습요구 진단	학습동기 유발요소가 있어야 한다.
	학습내용을 학습자의 경험 및 생활과 연결시키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학습목표 설정	학습목표가 잘 드러나게 하여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습활동 계획	학습목표를 탐색하거나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학습활동 실행	학습활동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
	학습활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띠어야 있다.
	학습자의 인지적 사고력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학습활동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여야 한다.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가 교과서에 드러나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5) 학습결과 평가	평가방법이나 평가를 위한 기준 등 평가를 위한 항목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음악 교과서의 방향

자기 주도적 학습 단계별로 음악 교과서의 방향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1) 학습환경 설정 및 학습요구 진단단계

현행 음악 교과서에는 학습자를 새로운 학습사태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내재적 동기를 가지게 하기 위한 동기유발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재적 동기란, 학습자 자신의 안정, 만족감, 성취감, 자아존중감의 고양 및 자기보상, 학습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호기심, 흥미, 탐색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동기로 학습에 대한 욕구와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영태 · 현정숙, 2002: 110). 음악학습 대부분의 활동은 있는 그대로를 단순히 외우고 재현하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특별한 감정이 모티브가 되어 음악으로 표현된 대상

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고 창조해내는 활동들이다. 학습자의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미적인 감수성이나 정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즉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학습 성취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습환경 설정 및 학습욕구 진단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유발을 통해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시각적 · 청각적 자료를 사용하고, 도전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학습목표 설정단계

우리나라의 음악 교과서의 목표 제시에 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음악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이나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점, 학습목표가 음악행위에만 국한되어 제시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음악 교과서에는 학습목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매우 필수적인 단계이다.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학습이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의 도입단계에서 학습목표에 대해 탐색할 시간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무작정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단 학습목표가 탐색되고 나면, 학습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학습전략과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의 전 과정동안 학습목표에 견주어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면서 학습목표 성취를 위해 자신의 학습전략을 수정하거나 유지시킨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학습자는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장애에 부딪히더라도 끈기 있게 수행을 지속시킬 수 있다. 반면에 학습목표를 탐색할 시간을 갖지 못해 학습목표를 뚜렷이 인지하지 못한 학습자는 학습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어 결과적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3) 학습활동 계획단계

현행 교과서에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계획을 세우거나 학습과정과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사가 아닌,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의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스스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학습자는 스스로 설계한 학습계획에 따라 학습을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학습계획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수행과정을 점검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과정을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4) 학습활동 실행단계

현행 음악교과서는 단일한 수준과 내용의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과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음악학습에 임하는 학습자들은 모두가 개별적인 상황과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습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음악에 관한 경험, 수준, 음악에 관한 취향, 미적 관점, 흥미도, 인지양식 등 다양한 개인차 변인을 가지고 있다. 이 때, 학습자의 개인차 변인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우므로, 학습목표 달성에 가장 고려하여야 할 변인들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학습결과 평가단계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평가'는 학습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평가는 학습자의 학습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 줄 뿐 아니라, 학습에서 스스로 배운 것을 되새겨 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반성하고 피드백을 해 주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학습자들은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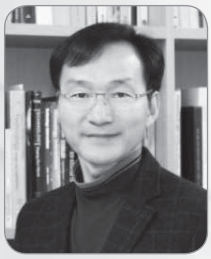
필자소개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저서 [음악교육학총론]과 [음악과 교재연구], 중·고등학교를 위한 음악교과서 집필 등을 통해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영태, 현정숙(2002), 자기주도학습력의 이해,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박형근(2012), 『자기주도학습 교육방법론』, (서울:아트블루)
- 배영주(2005), 『자기주도학습과 구성주의』, (서울:원미사)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8), 『자기 주도적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교단지원자료 97-16)
- 이홍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세광음악출판사

기술 · 가정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 탐구 -'기술'을 중심으로-



이 춘 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며

미래의 인재가 가지는 조건 중의 하나가 창의력 또는 창의적 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나 문제해결 능력은 하루 아침에 길러지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신장된다. 초등학교 실과나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기술 · 가정 교과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적 소양(technological literacy)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프로젝트법(project method)을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프로젝트법에서의 주요 목표가 바로 자기 주도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 · 가정과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술과의 특성이 조작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이와 유사한 학습방법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자기학습(self-learning), 자기숙달(self-mastery), 자율학습(autonomous-learning), 개별학습(individual learning), 개인학습(individual study)이 바로 그것이다. 일관성 있게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에 맞게 전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러다보니 자기 주도적 학습과 자기숙달 학습이 혼용되기도 하고, 개별학습과 접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기술과(맥락 상 때로는 초등 실과의 기술 영역 학습활동 포함)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교과서 형태나 지도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된다. 여기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개념학습을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기술과에서의 목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Ⅱ. 기술과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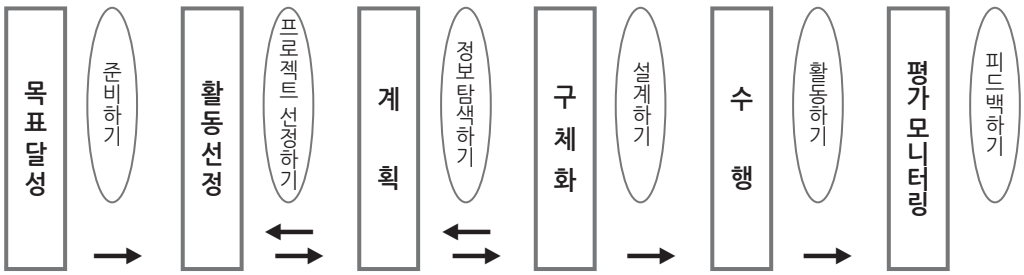
1. 기술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 개요

기술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강조하지는 않는다. 실습중심의 활동을 중시하는 교과로 교수학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에 대하여 통일된 견해는 없으나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Knowles(1975)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각 개인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정하여,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찾아 적절한 학습전력을 선택하여 실행 한 후 그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내용보다는 학습 방법에 초점을 두어 성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덜 선호하고 있다(전도근, 2010). 따라서 성인 학습자들이 어떤 특정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계획적이고 개인적인 시도를 하여 학습활동의 기술적인 면을 강조한 Tough(1967; 1979)의 의미를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개인이 스스로 학습과제를 계획하고, 시작하여, 수행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갖는 특정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시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기술과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계획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술과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학생들이 교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계획함으로써 전형적인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미영 외, 2009; 한상석, 2009; 이은희 외, 2008; 김혜영 외, 2010; 이용섭 외, 2010).

2. 기술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

Knowles(1975)는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을 크게



• 학습목표 확인 • 선행학습 및 필수학습 내용확인 • 수행 형태 선정 • 기본 재료 확인	• 가능한 프로젝트 제시 • 프로젝트 선정 기준 확인 • 프로젝트 선정	• 재료와 공구 조사 • 디자인 정보 수집 • 제작 과정 정보 수집 • 수집한 정보 정리	• 제품 스케치하기 • 구상도 그리기 • 제작도면 그리기	• 활동, 과제, 물건 만들기 • 기본 기능 익히기	• 제작 과정 평가 하기 • 제품 결과 평가 하기 • 평가 및 반성

[그림 1] 기술과의 프로젝트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

5단계로 제시하였다. 즉 학습욕구의 진단 → 학습목표 설정 → 학습자원의 확인 → 학습 전략의 선정 및 실행 → 학습결과의 평가 과정으로 적용한다. 또한 Tough(1979)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수행해야할 과정을 12개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과 직결되는 과정으로는, 학습장소 결정하기 → 학습시기와 기간 정하기 → 학습목표 선정하기 → 학습 방법 결정하기 → 각종 정보자료 찾기 → 학습 장애물 극복하기 → 지식/기능의 확인하기 → 학습결과의 피드백하기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간결하게 하여 기술과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면, 목표설정, 활동선정, 계획, 구체화, 수행, 평가 모니터링의 6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춘식 외, 2003).

목표설정 단계에서는 준비과정으로서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선행학습 및 필수학습 내용을 확인하며, 활동이나 과제의 수행 형태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 재료와 공구 등을 확인한다. 활동 선정 단계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으로서, 가능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 선정 기준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알맞은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계획단계는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로서, 필요한 재료와 공구를 조사하고, 설계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만드는 과정의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한 정보를 정리한다. 구체화 단계는 설계하는 과정으로서, 만들 물건을 스케치하고, 구상도를 그리며, 필요시에는 제작도면을 그리는 활동을 한다.

수행단계는 활동하는 과정으로서, 활동이나 과제 또는 물건을 실제로 만들고, 기본 기능을 익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이며, 학생 스스로 인내를 갖고 수행해야 한다. 교사는 도우미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물

[프로젝트 선정 기준표]

선정 기준	평 가		비 고
	예(1점)	아니오(0점)	(가중치)
1. 교육목표와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인가?			
2. 해보고 싶은 과제인가?			
3. 주어진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가?			
4. 수행 인원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5. 활용 가능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6. 사용 가능한 공구는 있는가?			
7. 프로젝트가 실용적인가?			
8. 프로젝트가 창의적인가?			
9. 프로젝트와 관련된 안내 자료가 있는가?			
10. 프로젝트 수행 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점 수			
판정: 수행가능 10-7, 수행고려 6-5, 수행불가 4점 미만			

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켜봐주어야 한다.

평가 모니터링 단계는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서, 물건의 제작 과정을 평가하고, 제품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단계에서의 피드백을 스스로 수행하거나 학생들과 공동으로 하여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이다.

3.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형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기술과의 교과서 형태나 요소를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할용할 수 있는 모형(박소영 외, 2013)을 먼저 탐색하였다. 교과서에서 구현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요소를 3가지 학습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동기 부여 및 유지 단계에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학습 내용과 밀접히 관련시키며, 학습자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부여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메타인지 활성화 단계에서는 어떤 전략과 정보처리를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자신의 이해 정도 및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며, 자신의 학습행동을 교정하고 잘못 이해된 부분을 반성함으로써 추수 학습을 향상시키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내용 구성 단계에서는 정보의 습득, 저장,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로 구성된 학습 전략을 의미한다. 크게 시연, 정교화, 조직화로 구분되는 인지전략과 학습시간관리, 학습환경관리, 노력관리로 구성된 자원관리전략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인지적 전략과 자원관리전략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전략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과의 활동중심 단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의 구성을 위한 학습전략으로서의 장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목표설정 단계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를 제공한다. 즉 '목표 세우기' 코너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내용과 자신의 이전 경험을 관련지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자신의 이전 경험과 학습 내용을 매칭 시킬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한다.

2) 활동선정 단계

다양하고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적절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목록표'를 교과서에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 목록표에는 프로젝트 선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계획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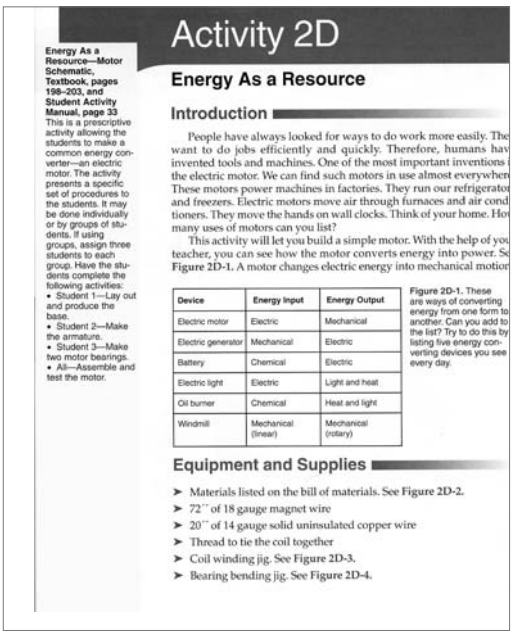
학습자의 학습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는 양식('자료를 정리해 봐 요')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4) 구체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선정된 프로젝트의 스케치와 구상도를 그리는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등각투상용지를 부록에 별지의 형태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5) 수행 단계

자기 주도적 학습의 주요 단계로서, 학생들이 스



Energy As a Resource—Motor Schematic, Textbook, pages 198–203, and Student Activity Manual, page 33
This is a prescriptive activity allowing the students to make a common energy converter—an electric motor. The activity presents a specific set of procedures to the students. It may be done individually or by groups of students. If using groups, assign three students to each group. Have the students complete the following activities:
• Student 1—Lay out and produce the base.
• Student 2—Make the armature.
• Student 3—Make two motor bearings.
• All—Assemble and test the motor.

Activity 2D

Energy As a Resource

Introduction

People have always looked for ways to do work more easily. The
want to do jobs efficiently and quickly. Therefore, humans hav
invented tools and machin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ventions
the electric motor. We can find such motors in use almost everywhe
These motors power machines in factories. They run our refrigerato
and freezers. Electric motors move air through furnaces and air cond
tioners. They move the hands on wall clocks. Think of your home. Ho
many uses of motors can you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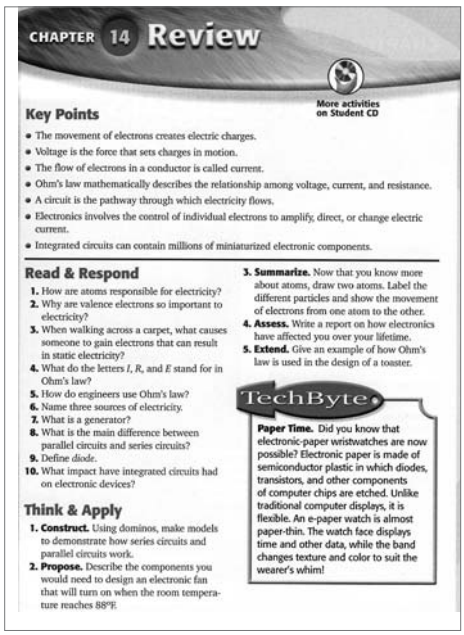
This activity will let you build a simple motor. With the help of yo
teacher, you can see how the motor converts energy into power. S
Figure 2D-1. A motor changes electric energy into mechanical motio

Device	Energy Input	Energy Output
Electric motor	Electric	Mechanical
Electric generator	Mechanical	Electric
Battery	Chemical	Electric
Electric light	Electric	Light and heat
Oil burner	Chemical	Heat and light
Windmill	Mechanical (linear)	Mechanical (rotary)

Figure 2D-1. These are ways of converting energy from one form to another. Can you add to the list? Try to do this by listing five energy converting devices you see every day.

Equipment and Supplies

- Materials listed on the bill of materials. See Figure 2D-2.
- 72″ of 18 gauge magnet wire
- 20″ of 14 gauge solid uninsulated copper wire
- Thread to tie the coil together
- Coil winding jig. See Figure 2D-3.
- Bearing bending jig. See Figure 2D-4.



CHAPTER 14 Review

More activities on Student CD

Key Points

- The movement of electrons creates electric charges.
- Voltage is the force that sets charges in motion.
- The flow of electrons in a conductor is called current.
- Ohm's law mathematically describes the relationship among voltage, current, and resistance.
- A circuit is the pathway through which electricity flows.
- Electronics involves the control of individual electrons to amplify, direct, or change electric current.
- Integrated circuits can contain millions of miniaturized electronic components.

Read & Respond

1. How are atoms responsible for electricity?
2. Why are valence electrons so important to electricity?
3. When walking across a carpet, what causes someone to gain electrons that can result in static electricity?
4. What do the letters *I*, *R*, and *E* stand for in Ohm's law?
5. How do engineers use Ohm's law?
6. Name three sources of electricity.
7. What is a generator?
8. What i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parallel circuits and series circuits?
9. Define *diode*.
10. What impact have integrated circuits had on electronic devices?

Think & Apply

1. **Construct.** Using dominos, make models to demonstrate how series circuits and parallel circuits work.
2. **Propose.** Describe the components you would need to design an electronic fan that will turn on when the room temperature reaches 88°F.
3. **Summarize.** Now that you know more about atoms, draw two atoms. Label the different particles and show the movement of electrons from one atom to the other.
4. **Assess.** Write a report on how electronics have affected you over your lifetime.
5. **Extend.** Give an example of how Ohm's law is used in the design of a toaster.

TechByte

Paper Time. Did you know that electronic-paper wristwatches are now possible? Electronic paper is made of semiconductor plastic in which diodes, transistors, and other components of computer chips are etched. Unlike traditional computer displays, it is flexible. An e-paper watch is almost paper-thin. The watch face displays time and other data, while the band changes texture and color to suit the wearer's whim!

[그림] McGrawHill Glenco(2007). Technology Interaction

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과정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삽화와 사진 등을 세밀하게 제시하여 학습자가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과서에서는 지면이 제약되어 있어서 수행과정을 압축하는 경향이 많았다. 매 시간마다 '수행일지'를 쓰게 하여 포트폴리오가 되도록 한다. (우측그림: The Goodheart-Wilcox Company(2004). Technology-Design and Application)

6) 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위한 양식(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스스로 또는 동료와 함께 학습한 내용이나 활동을 되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학습과정 및 학습 결과물에 대한 자기평가 혹은 동료평가 결과가 전체 단원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안내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활동지가 필요하다.

Ⅲ. 나가며

이 논의에서는 기술.가정과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과정과 교과서 지원에 대하여 성찰 형태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기술과의 프로젝트형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한정하였다. 기술과의 특성 상, 활동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의 형태도 프로젝트와 연관지은 것이 한계였음을 밝힌다. 또한 기

술과의 구체적인 자기 주도적 교과서의 예시자료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각 단계별로 필요한 교과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밝힌 것에 착안하면 교과서의 구현도 가능하리라 본다.

필자소개

서울 중화중학교, 중랑중학교, 월계중학교 기술 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실과, 기술 · 가정과 교육과정, 평가방법, 교과서 개발)
현)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천재교과서), 중고등학교 기술 · 가정 교과서(천재교육)의 개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교과서의 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소영, 김혜숙, 윤지훈, 남창우, 이동엽(2013).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일반 모형 개발(연구보고 CRT 2013-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춘식 외 (2003).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예시 자료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I 2003-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도근 (2013). 자기 주도적 학습의 오해와 진실. 제2회 미래형 학교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New York: Association Press.
- Grow, G. (1991). Teaching Learners to be self-directed: A stage approach. Adult Education Quarterly. 125-149.
- Tough, A. (1967). Learning Without a Teacher. Educational Research Series, 3. Toronto: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Tough, A. (1979). The adult's learning projects: A fresh approach to theory and practice in adult learning (2nd ed). Toronto: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초등 수학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

강 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 초등 수학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

초등 수학 교과의 학습 내용은 크게 수학적 개념 이해와 계산 기능 숙달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09 개정 초등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내용을 수와 연산, 도형, 측도, 규칙성, 확률과 통계의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수학 교과서의 단원은 각 학기별로 6개 단원씩 모두 71개 단원인데(1학년 1학기의 경우만 5개 단원이다), 이중 수와 연산 영역에 속하는 단원은 32개 단원으로 약 45%이고, 계산과 직접 관련된 단원은 21개 단원으로 약 30%에 달한다.

이는 초등 수학 교과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효과가 계산 능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초등 수학 교과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성공 관건은 계산력의 숙달이다. 그러나 계산력만으로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학적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계산 기능 자체도 계산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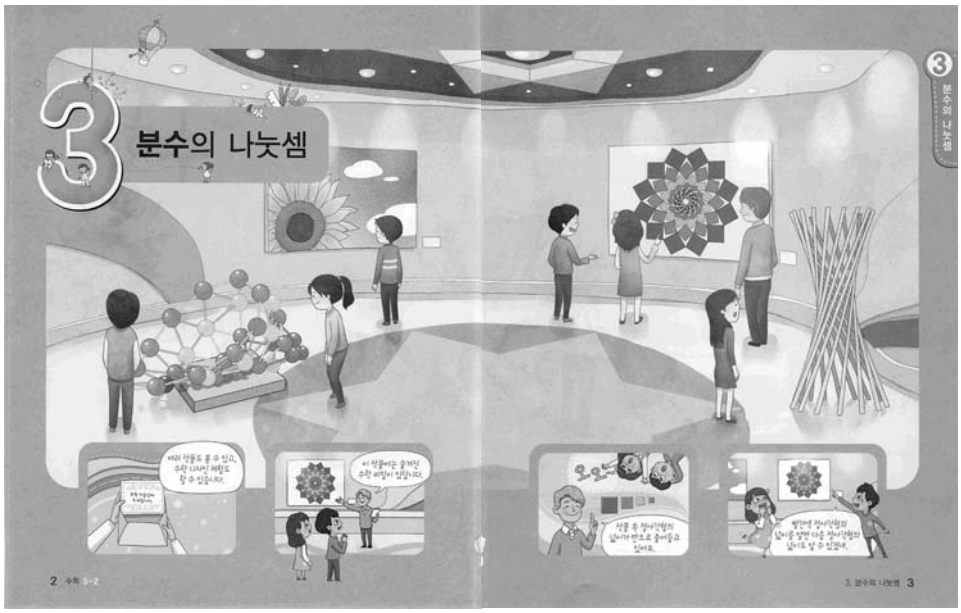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과 계산 원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충실히 잘 활용하여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교과서만큼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학습 도우미는 없다. 교과서에 충실한 학습이 자기 주도적 학습의 성패를 좌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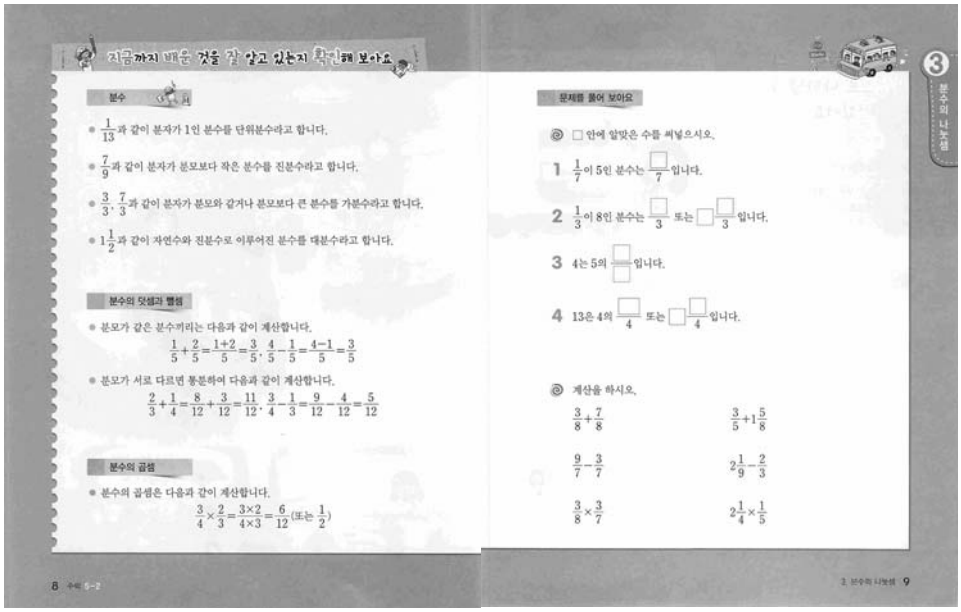
2.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교과서의 모형

가. 단원도입

단원도입부는 단원의 학습 내용에 대한 동기유발과 선수 학습 내용의 상기를 주된 목표로 한다.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스토리텔링의 전개를 돕기 위해 만화로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본문 차시 학습에 앞서 선수 학습 내용 상기는 선수 학습 내용의 요약 및 간단한 성취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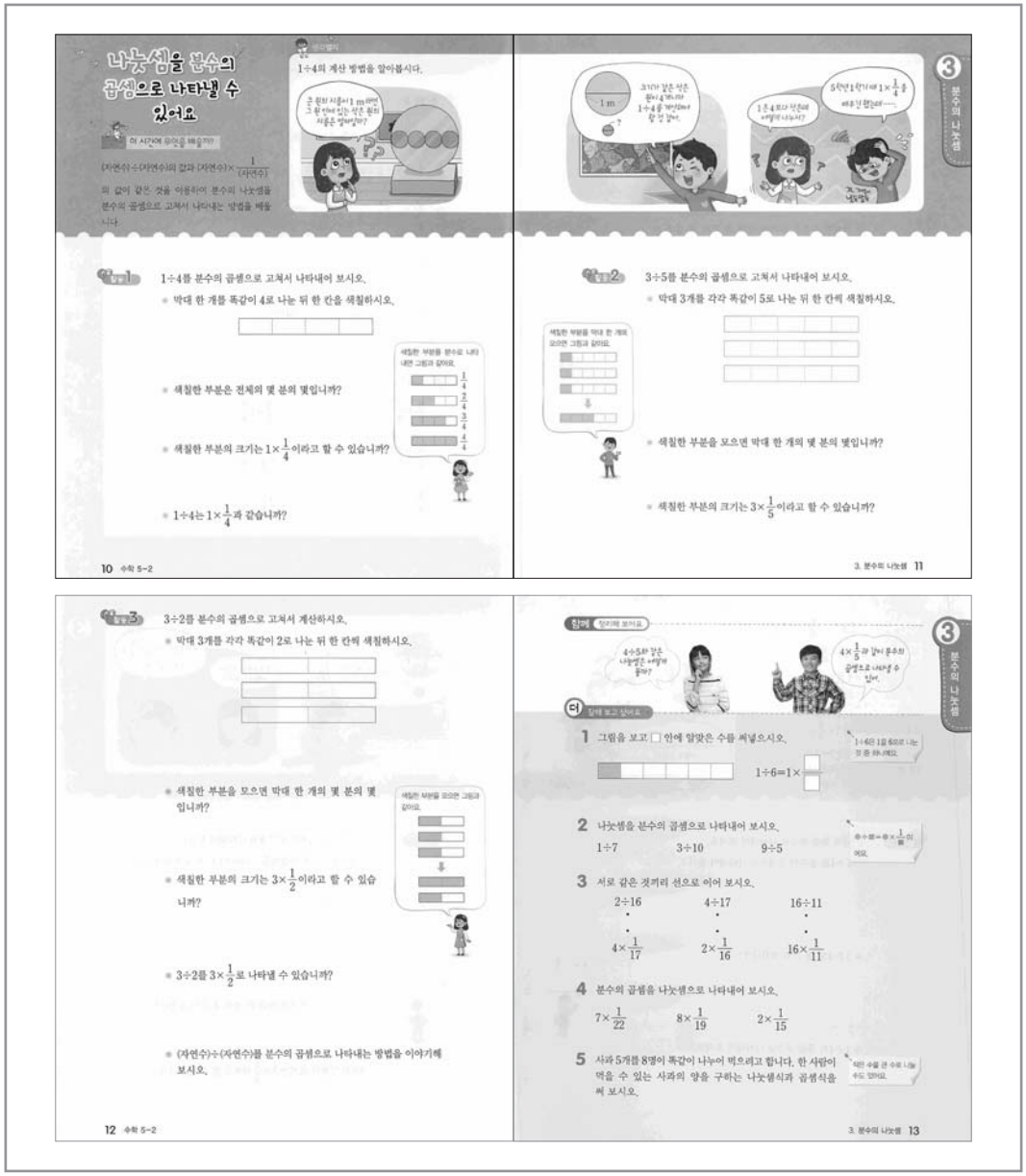




나. 본문 차시

본문 각 차시는 차시 제목, 생각열기, 활동, 마무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차시 제목만으로는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울까?>와 같은 코너를 마련해주는 것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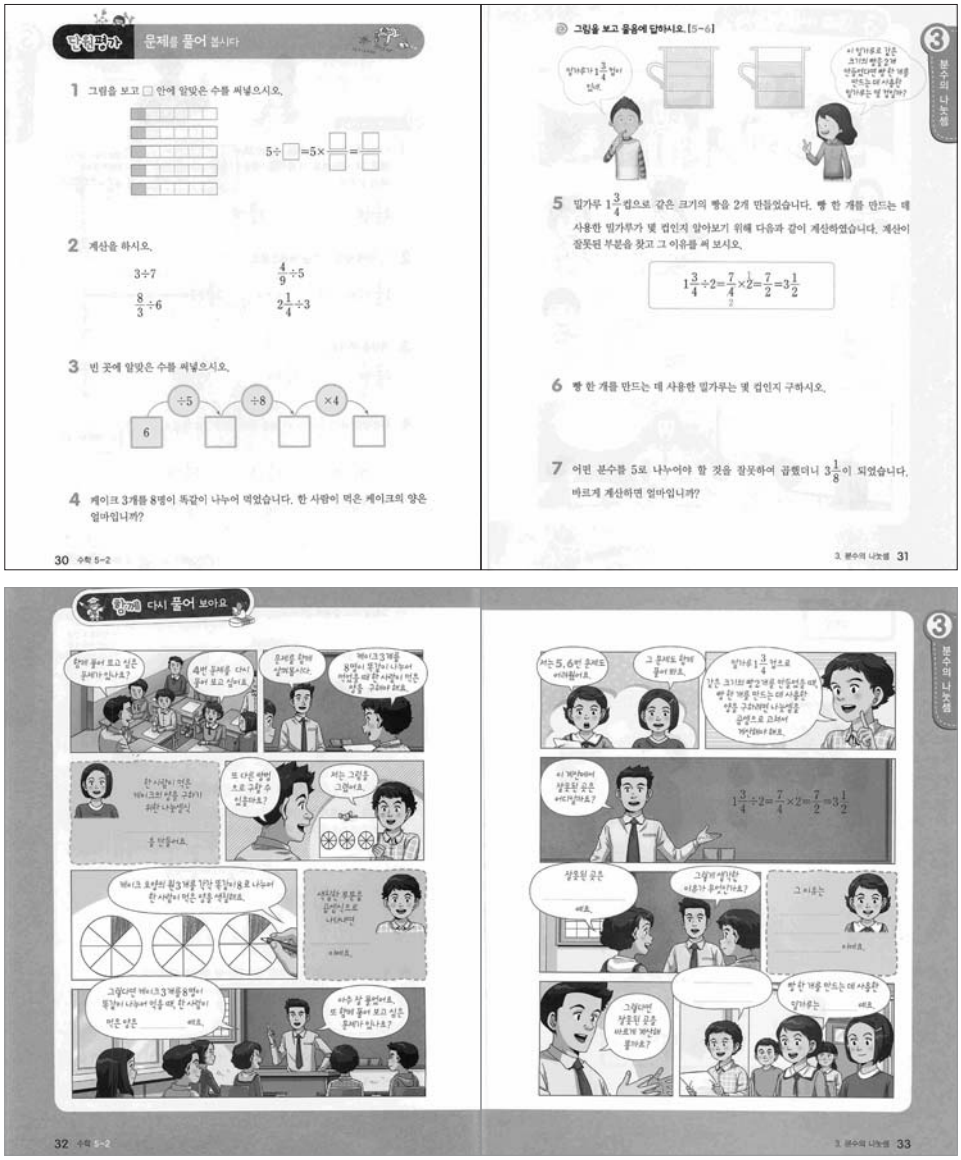
각 차시의 몸통을 이루는 각 활동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캐릭터를 등장시켜 도움말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차시를 마무리하기 전에 각 차시에서 배운 활동 내용을 정리해보는 <함께 정리해보아요> 코너를 제시한 다음 <더 잘해보고 싶어요> 코너를 만들어서 마무리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다. 단원평가

단원 평가의 문항은 고르게 모든 차시에 관련된 문항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일부 차시는 생략될 수도 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고르는 것보다는 단원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문항을 잘 구성하여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단원 평가 후에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함께 풀어보는 <함께 다시 풀어보아요> 코너를 만들어서 단원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초등 수학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지도 방법

초등 수학 교과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돕기 위한 지도는 교사의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과서에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단원도입 시에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이 충분히 일어나고, 앞으로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예상해 보는 일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또한 해당 단원 학습에 필요한 선수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일도 필요하다.

본문 각 차시에서도 각 차시의 학습 목표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며, 생각열기 활동을 통해서 각 차시의 학습 동기 유발을 효과적으로 시도하도록 한다. 본문 활동은 설명보다는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 활동 중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캐릭터의 도움말을 참조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차시를 마무리할 때에는 해당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익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다.

단원 평가를 할 때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추었는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떤 문제에서 어떤 학생들이 곤란을 겪었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다시 다함께 풀어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강완 · 이정민 · 임다원 · 강희경 · 박묘선 · 노경희 (2014). 현행 초등 수학과 교과서 현장 적합성 검증 및 차기 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 서울: 두산동아(주).
- 강완 · 나귀수 · 백석윤 · 이경화 (2013). 초등 수학 교수 단위 사전. 서울: 경문사.
- 교육부 (2014).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교과서 시범단원 초등학교 수학 5-2.
- 교육부 (2014). 핵심 성취 기준 시범단원 적용 선도학교 운영보고회.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정책연구 2011-11).

필자소개

미국 조지아대학교 수학교육학 박사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수학교육과 교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수학 교과서 집필책임자

시 · 도교육청의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송 낙 현
교육부 교육연구사

지식과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도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큰 목표아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정책이 발전하고 있다. 초 · 중등학교의 교실수업에서 교수학습의 가장 기본 도구인 교과서는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부터 교과서 정책은 자유발행제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유발행제가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나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인정도서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교과서는 점차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인문 · 사회 ·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과서는 새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쉽고 재미있는 친절한 교과서의 개발과 사용으로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교실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일 것이다.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 도교육감에게 그 개발과 심사 등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사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정도서 확대 정책에 따라 전체 초 ·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84%에 이르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시 · 도교육청은 교과서의 개발과 심사 등의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고 업무의 노하우와 전문성도 부족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교육청의 인력문제 등 원활한 인정도서 업무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지만 그동안 1년씩 인정도서 주관교육청을 지정하여 교육청간 '인정도서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인정도서 업무 관련 조정 및 협의를 하면서 이전보다는 그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 · 도교육청의 인정도서협의회에서는 인정도서 관련 업무의 교육청간 조정과 협의 등을 거쳐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과목의 인정도서의 시 · 도교육청별 분담. 개발 및 심사, 감수, 수정 · 보완, 가격 조정 및 명령,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현장 교원 연수 등을 추진하였다.

올해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교육청을 담당하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인정도서 협의회'를 교육청 간 인정도서 업무의 조정 및 협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강화하고자 시 · 도교육청이 협의하여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필자는 교육부의 인정도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인정도서의 개발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청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조정 및 공동 관리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 · 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 시 · 도교육청, 유관기관 등의 역할과 업무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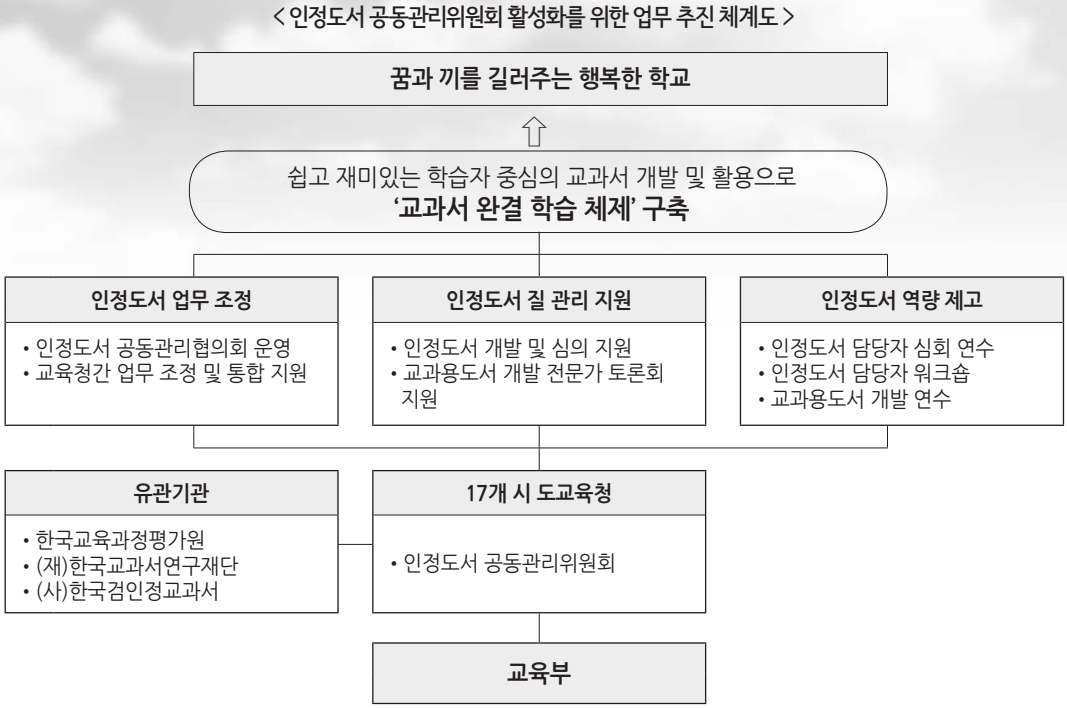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이 인정도서 질 관리와 원활한 개발 및 심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물론 이와 관련한 지도 감독 등도 필요하다. 주로 교육청이 현장 교원의 교과서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정도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교육청간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와 질 관리 등을 위해 교육청간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시 · 도교육청은 평소에 인정도서의 질 관리를 위해 인정도서 기간본을 관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시 · 도교육청별 인정도서 분담, 개발 예정자 파악,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 · 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는 교육청별 인정도서 업무 담당자(개발, 심사, 가격 조정, 주문 · 공급) 중심의 인정도서 업무 정보 공유 및 문제점 개선 등에 관하여 지속적 협의를 통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인정도서 심사 등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인정도서의 개발 및 심사, 전시, 주문 등을 교육청간 일정과 방법 등을 조정 및 합의하여 학생 학부모의 교육 수요자뿐만 아니라 발행사 등의 원활하게 인정도서를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경우는 교과용도서 관련 연구와 연수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도 높아 앞으로 교과서 관련 지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사)한국검인정교과서의 경우도 검 · 인정도서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전시, 주문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주문 부수가 소량인 교과서인 경우도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인쇄 · 공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5년은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고 교과용도서도 개발이 착수되는 해로서 그 의미가 크고 교과서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교육부는 물론이고 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시 · 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는 인정도서 개발 준비와 착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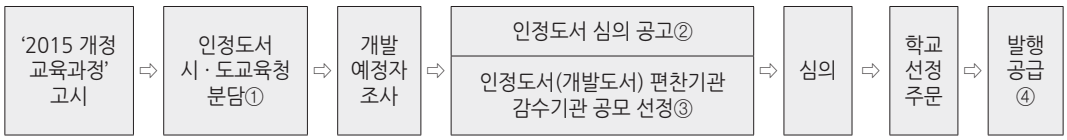
이러한 차원에서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시 · 도교육청간 인정도서의 업무 조정이다. 인정도서는 개발 및 심의 관련 교육청간 일정 및 신청 공고와 관련 문서 등을 조정해야 원활하게 인정도서 개발 등이 추진될 것이다. 또한 교과서 관련 소송 등에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청간 업무의 조정 및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인정도서 개발과 시 · 도교육청 담당자 및 현장 교원 연수 등은 시 ·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더 효율적이고 그 효과가 높다면은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월 1회 이상 회의가 필요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회의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정도서 개발 및 질 관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간본의 인정도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개편 추진에 따른 인정도서의 개발 및 심의 등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질 높은 인정도서 개발 및 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정도서 시 · 도교육청 분담, 인정도서 심사 공고, 인정도서(개발도서) 편찬 및 감수 위탁, 발행 공급 기관 선정 등의 선정 및 관리 · 감독 등이 원할히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등의 지원 절차 >



지원 사항

① 교육청별 학교 수, 학교 특성(특목고, 특성화고 등)에 따른 교원 등의 개발 인력풀을 고려하여 교육청별 인정도서 개발 분담 지원
② 인정도서 심사 출원을 위한 심의 공고 시에 관련 일정 등을 교육청간 조정
③ 인정도서(개발도서)의 편찬기관 및 감수기관 공모 선정 시 교육청간 협의를 통한 전문기관 공모 선정 등 추진
④ 소량의 주문 부수도 안정적 발행 공급이 가능한 기관으로 선정 등 추진

이와 더불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필요하다면 그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구분 및 분책 등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현장 교원 및 교과서 전문가 중심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학생 중심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목표에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셋째, 인정도서 담당자의 업무 추진 역량 제고 뿐만 아니라 교과용도서 개발 주체에 대한 연수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시 · 도교육청의 인정도서 담당자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매우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등 업무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와 교육청의 인정도서 제반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화연수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 연수는 주로 교과용도서의 정책 방향,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등 실무, 인정도서 개발 관련 협의, 인정도서 업무 편람 활용성 제고 등이 그 세부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인정도서 담당자 워크숍도 필요하다. 물론 회의 등을 통해 업무 조정 등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특히, 인정도서 업무 역량 제고 연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청별 시 · 도교육청 분담, 인정도서(개발도서) 편찬 기관 선정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집중적 토론 등을 통한 업무 조정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정도서를 포함한 초 · 중등학교의 교과서 개발을 위해 개발 주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수 추진도 고려할 수 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 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교과서 발행사, 집필진 및 심의진 등의 연수를 순차적으로 한다면 공동관리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은 교과서 연수 전문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단, 국가시책사업으로 운영되어 전문기관 위탁 시 주관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등의 지원 절차 >

교과서 개발 연수 전문기관 공모 ⇨ 공모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 연수 공모기관 선정 심사 ⇨ 연수 전문기관 선정 ⇨ 연수 전문기관 협약 ⇨ 연수 실시 ⇨ 결과 평가 및 정산 보고

이제는 시 · 도교육청도 교과서의 개발이나 심사 등의 업무 추진 노하우와 그 전문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양질의 교과서를 통해 학교 수업 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학생들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진정으로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여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교육,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시대적인 소명일 것이다.

배움과 체험으로 하나되는 다문화 어울림 교육

황 승 택
남양주송라초등학교 교장

세계적으로 정보화, 산업구조 개편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간 인적 · 물적 교류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및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가 실시되고, 1993년 "세계화"를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입국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동화된 3D인력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 이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익숙하게 통용되고 외국인 인종차별, 불법체류자 인권문제,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공통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입국하고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들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는 전에 없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숫자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정체성 혼란, 학습 부진과 부적응, 학업중단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그들의 자리도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사회 · 종교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큰 책임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라 생각한다.

이에 본교에서 그동안 다문화 아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써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의 시작 그리고 현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에 위치한 남양주송라초등학교는 농촌 · 도시 복합형 학교로 관내 학교 중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1년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을 출발점으로 2013년 베트남 후엉호아 국제문화교류 사업과 다문화교사 동아리 운영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기초를 다졌고 2014년에는 교육부 지정 다문화예비학교 및 경기도 교육청 지정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과 다문화교사 ·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통해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마을 방문 및 MOU 체결, 러시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모국 방문단 초청을 통하여 다문화 국제문화교류의 발판을 만들었다.

2015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다문화특별학급 지정 및 경기도교육청 학생국제문화교류사업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다문화교육과 국제문화교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학교, 마을배움터를 중심으로 한 품앗이 다문화교육공동체를 조직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다문화교육을 꿈꾸고 있다.

다문화교육, 누구에게 무엇을

현재 본교는 중도입국생 7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다.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교 의존도가 높고 특기신장이나 진로탐색 및 체험학습의 기회가 부족하여 빠르게 변해 가는 사회 ·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인하여 자아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자존감이 낮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 신장과 학교 및 생활문화적응의 기회 제공, 자신감회복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돕고, 일반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하여 타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공감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 학부모 ·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고 친밀감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수준별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다

출신국, 한국 거주기간, 가정환경 등이 각기 다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개인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

KSL 한국어 교육과정, 수준별 기초수학, 학력향상 멘토링, 방과후 통합 프로그램, 협력학급 수업 등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생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학급에서 1:1로 KSL 한국어교육과정과 기초수학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방과후 통합교육과정과 협력학급 수업, 또래 멘토링을 통해 타교과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별히 국내 출생자이지만 읽기와 쓰기가 부진한 경우, 국어과 정규수업 시간에 특별학급으로 이동하여 수준별 개별화 수업을 받도록 지도하고 교과 부진 다문화 학생의 경우, 방과 후 협력학급 담임과 대학생을 활용한 학력향상 멘토링으로 부족한 교과를 보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우는 방과 후 통합교육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많고 방과 후 아동관리가 소홀하며특기신장이나 소질계발을 위한 체험 기회가 부족하여 자존감이 낮고 문화예술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경직된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과 후에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기르고 특기 신장 및 소질 계발을 통

[요일별 방과 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일	프로그램 명	비고
월요일	우클렐레와 난타, 가야금	
화요일	산대놀이 전수 교육	학부모와 함께
수요일	창의미술	
목요일	이중언어(중국어, 일본어)	
금요일	생활체육(인라인)	
토요일	다문화밴드	일반학생과 어울려

우크렐라

다문화 밴드 동아리

난타 동아리 나눔 발표회

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게 하며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주제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사용능력을 신장시켜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도록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동아리운영은 요일별로 운영되며 학생 개인별 희망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중국어 동아리의 경우,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 · 운영되고 일본어 동아리의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유 선택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배움과 체험으로 하나 되는 어울림 교육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학부모는 출신국에 따라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그것은 새롭고 낯선 사회에 조기 적응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주류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외감과 불확실한 자아정체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학생들에게 배움과 체험을 통한 생활교육으로 한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 학생들에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하고 어울림을 통하여 긍정적인 다문화인식과 친다문화적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매월 1 · 3주 수요일을 생활문화 적응을 위한 '배움과 체험의 날'로, 월 1회 토요일을 '동네방네 마을배움터 나들이 날'로 정하고 다양한 주제, 장소, 참가자(협력학급 교사, 또래 친구들,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가족)를 선정하여 다문화인식 개선과 생활문화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회성 현장학습으로 그치지 않도록 사전·사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지도 및 공공장소 예절교육, 생명존중 및 환경교육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있으며 동네방네 운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동네방네 마을배움터 나들이 프로그램]

순	일시	장 소	활동 내용
1	4.25(토)	구리타워 곤충생태관	구리타워관람. 곤충생태관 체험(곤충목걸이 제작)
2	5.23(토)	수종사, 거미박물관	수종사 관람. 다양한 거미의 종류와 거미생태 체험
3	6.20(토)	동구릉, 홍유릉	조선 왕릉의 구조 알기
4	7.19(토)	고구려 대장간 마을	고구려 문화재 관람, 고구려 생활문화 체험
5	9.19(토)	우석헌자연사박물관	박물관 견학 및 자연 생태체험
6	10.24(토)	남양주 영화촬영소 실학박물관	영화촬영 기술 및 영화세트장 견학, 다산유적 유물관람
7	11.21(토)	백봉산 등반	백봉산 등반으로 심신의 건강과 애향심 고취

다문화교육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통합지원 교육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다문화교육을 지양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자투리 천 한 조각은 보잘 것 없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밑그림 속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각양각색 매력을 뽐내고 있는 모자이크 벽걸이는 너무나 멋진 예술작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교육공동체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친다문화교육이라는 구심점을 향해 하나가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송라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은 남양주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다문화사회진흥원, 무지개청소년센터,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 옹달샘, 국가보훈연구원, 퇴계원산대놀이 전수회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양질의 교육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그들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다문화이해 교육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인교대 장인실 교수의 주장처럼 주류 집단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지원이 아닌 모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하겠다.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하여 여름방학 꿈GILL(길) 캠프와 겨울방학 진로·리더쉽 캠프를 개최하고 가족사랑 cake 만들기, 엄마나라 요리 교실, 갯벌체험학습, 나라사랑 아름다운 동행 가족 캠프 참여, 충정로 난타공연 관람 등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가족 간 친밀감을 강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관계 개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다문화이해를 위해 일반학급을 대상으로 연 10차시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학생과 함께 하는 다양한 어울림 체험학습, 다문화 언어 강사를 활용한 국제문화이해 교육과 이중언어 방학캠프(일본어, 중국어)를 실시하여 간단한 기초회화와 나라별 전통 의식주 체험, 문화와 놀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나눔이 있는 다문화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월드비젼, 사립유치원, 부천 · 광명 교사 동아리, 본교 영재반 아동 및 교사와 함께 다양한 다문화체험(몽골, 러시아 강사 초빙)과 나눔을 통한 국제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다문화교육을 시도하여 2014년에는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마을 방문과 MOU 체결로 지속적인 국제문화교류의 터전을 마련하고 교육봉사활동(한글교육, 전통예절 및 민속놀이 지도)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널리 알리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 기념 고려인 한국 방문단을 초청하여 다양한 축하 공연과 어울림 마당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민족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뜻 깊은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러시아 로지나 서당	고려인 한국 방문단 초청
다문화체험의 날 운영	**고려인 한국 방문단**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문화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는 다문화교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세계요리 만들기 체험, 다문화박물관 견학, 안산원일초등학교 방문 및 다문화거리 체험, 다문화 힐링 연수, 2015년 다문화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샵, 다문화교사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오프라인 연수와 다문화 원격연수를 병행하여 심층적인 다문화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급속하게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소수자·시혜적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차원을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지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시민으로서 '나' 보다는 '우리'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함께 어깨동무 할 수 있는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하겠다.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학교와 교실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들이 마을과 온 누리 구석구석을 밝히는 등불 되어 이 땅 모든 다문화가정 부모와 학생들이 맘 놓고 활짝 웃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필자소개

- 남양주 송라초등학교 교장(현)
-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자문위원(현)
- 동북아교육나눔연대 대표(현)
- 경기도교육청 장학담당 장학관(전)
- 경기도 열린영재교육연구회 회장 (전)

'광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 원 길
시인, 안동지례예술촌장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 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세월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육사의 이 시 “광야”를 두고 말들이 많다. 첫 연 3행의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를 “들렸을까?”가 아니라 “들렸으리라”의 줄임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이다. 말하자면 “아득한 태초에 천지가 개벽될 때 어디선가 천지개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다.”라는 해석이다. 그러고 보니 그도 그럴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나는 고등학교 시절 이 시를 처음 읽고 받아들인 느낌은 그때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의 견해와 일치하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들렸으랴’는 ‘들렸을까’, 즉 ‘들리지 않았다’인 것이다. 왜냐하면 천지개벽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닭 울음소리는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고 개벽 초에 과연 닭이나 닭 울음소리를 들어줄 인간이 있었을까하는 점이다. 특히나 닭이란 야생이 아니라 인간이 길들이고 키우는 가금家禽이니 닭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뜻인데 태초에 어찌 인간이 있었겠는가? 따라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 인간인들 태어나 있었겠는가? 라는 뜻이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는 ‘닭인들 있었겠는가’의 뜻이고 닭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 인간도 나타나지 않은 태초임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의 이러한 견해는 나만의 것일까? 나는 육사의 시에 비교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육사의 고향 원촌마을의 친척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 보았다. 그들 중 현대문학을 공부하고 교편생활을 한 이원성(1930~ 육사의 재종, 국어교사), 이원집(1934~ 육사의 4종, 국어교사)씨와 수필가 이원정(1934~ 16촌)씨와의 대담에서도 확인한 바 “육사에게 직접 물어 본 적은 없지만 당연히 ‘들렸으랴’는 ‘들렸겠는가’이다. 육사는 다른 어느 시에서도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줄이고 비틀어서 한 예가 없지 않는가” 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나타나는가?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아직 인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세월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고 나자 그 강가에서 인간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과 닭의 등장은 태초가 아니라 그로부터도 오랜 세월 뒤 ‘강물이 길을 연 후’에 나타남직한 것이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가이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질문이 남는다.

"육사가 태초의 고요를 말하기 위해 닭소리를 언급함으로써 일부 독자로 하여금 오독의 빌미를 주었으니 이는 신중한 문장 서술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오독의 원인 제공이 육사에게 있는가 독자에게 있는가를 묻는 질문인 것이다.

한 마디로 육사가 생장했던 농경시대에 이 비유는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요즘 학생들은 생뚱한 표현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70대의 내 나이만 되어도 예로부터 고요한 시간, 신성한 장소를 말할 때는 의례히 "개닭 소리 들리지 않는" 이란 표현을 쉽게 써왔기 때문이다. 계명성鷄鳴聲이 들리는 곳은 인간 세상, 이해가 얽히고 경쟁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속된 세상이기 때문에 천지개벽 이후의 신성한 땅 광야曠野에 인간세상을 암시하는 닭소리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신성한 땅, 광야에서 젊은 육사는 새로운 인류 문명이 열리길 기원한다. 양차의 세계대전을 보았고 일제의 잔인무도함을 보고 망국민의 한을 안은 육사는 인간의 역사와 문명 전체를 부정하고 싶었을 것이니 신천지의 탄생을 상상하고 인류문명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어 봄도 당연하였을 것이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설중매가 피는 이른 봄, 농부가 파종을 생각하듯 육사는 이 신성한 처녀지에 소박하게나마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는 것이다. 이때의 노래란 평화와 사랑의 노래로서 아득한 미래에 올 메시아에 의해 목놓아 불리어지도록 예비하겠다는 것이다.

위 시구는 너무도 함축되어 영국의 셸리의 명구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와 기독교 성서의 "메시아의 영접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이미지가 두루 떠오른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혹자는 이 부분을 “광복의 염원”이라고 해석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육사가 조국의 독립을 천고의 뒤에 오기를 희망했다는 말인가? 비록 육사의 시대가 일제 강점기이고 그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남긴 모든 시를 독립에 연관 지어 해석하여야만 할까?

육사가 염원한 것이 조국의 광복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 ‘광야’에 나타나 있는 것은 새로운 이상사회의 건설이고, 광야라는 ‘텅 빈 들판’은 그 기지基地인 것이다.

육사는 조국광복의 대의를 뛰어넘어 세계의 정화와 인류구원의 꿈까지를 머리에 그려 본 시대를 초월한 시인이요 아름다운 혁명아였다.

필자소개

《월간 문학》에 「취운정 마담에게」(1971), 《시문학》에 「꽃그늘에서」 외 5편으로 등단(1972). 시집 《개안》(1974), 《내 아직 적막에 길들지 못해》(1984), 《들꽃다발》(1993), 《아내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한다》(2009), 해학모음집 《안동의 해학》(2002)을 냈다. 중등학교에서 국어, 대학교에서 문장론, 비교문학을 강의하다가 임하댐 건설로 고향 지례마을이 수몰될 때 교직을 포기, 선대의 고가들을 뒷산으로 옮겨 문예창작마을 ‘지례예술촌’ 을 조성하고 고택문화보전회를 창립하는 등 전통생활체험에 힘써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 핀란드의 학교 교육 (대담)*

김 정 영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교수
대담 **유 순 기** 본지 편집기획 간사

1. 핀란드 학부모들과 한국의 학부모들의 같은 점,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점입니까?

양국 학부모 사이에 발견되는 다른 점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핀란드의 학부모는 학교 교육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교육은 교육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학교는 좋은 곳'이라 보고 있으며 학교에 관한 한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에서 이러한 '신뢰'의 태도는 단지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적 상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지수 조사에서 핀란드가 지속적으로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 핀란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가 철저히 구축되어 있는 국가이고, 그 신뢰가 사회를 지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므로 정부가 관여하는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체적으로 불만이 없습니다. 매우 극소수를 제외한 핀란드의 학교들이 거의 모두 공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는 당연한 사회의 산물일 것입니다.

* 이 대담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헬싱키대학교 김정영 교수와 헬싱키 소재 초등학교 교사 비르바 라이사넨(Virva Raisanen)과의 예비적인 면담을 토대로 김정영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원고임.

또한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입장은 다를 수 있겠으나 한쪽은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쪽은 권위를 세워줘야 하는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문화에 기인한 수직적 인간관계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핀란드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완전히 평등한 수평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교사들이 권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핀란드에서도 교사들의 권위가 매우 존중 받기는 하나 그 권위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봉사직에 필요한 도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학부모들은 교사의 권위 아래 있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신들 자녀의 웃어른인 교사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핀란드의 학부모들은 교사를 서로 입장이 다른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사고에서 양국 학부모들의 다른 점을 언급하라면 단연 '교육열'의 유무라고 봅니다. 한국의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가능한 한 높은 교육을 받고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경쟁에서 앞서가기를 원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성취한 학업의 성과가 마치 학부모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핀란드 인들은 경쟁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성향에도 반영되어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얼마나 좋고 나쁜 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기를 선호하기는 하나 자녀들의 학업에 간섭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잘 알아서 하길 바라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는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학부모와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에 속한 학부모 간에 나타날 수 있는 태도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 핀란드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합니까? 혹은 요청합니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핀란드에서 교사는 대단히 존경을 받는 직업으로 그 사회적 위상은 의사나 판검사 이상으로 높을지 모르겠으나 학부모들이 그 위상을 염두에 두고 어렵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교사와 학부모 상담 시 교사들이 권위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강조하면서 요청하기보다는 주로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편입니다. 핀란드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접촉은 일 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상담 시간 15분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이 상담시간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30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학부모가 학교에 가는 경우는, 한 학기를 마감하는 크리스마스 직전과 한 학년을 끝내며 봄에 발표하는 학예회뿐입니다.

학생이 숙제를 잘 하는 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교내에서 개별 학습을 시키기 위해 학부모와 (매우 대등한 입장에서) 상담을 합니다. 학습부진이 아닌 생활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전문 심리 상담사 및 사회봉사 활동가 등이 참여해 학생의 가족을 어떻게 지원하며 학부모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지 상의합니다.

3. 핀란드 학부모들은 학교(교사)에 대해 주로 어떤 점을 요청(기대)합니까?

핀란드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신뢰하는 만큼 교사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없습니다. 핀란드식으로 표현하자면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사회 분위기 상 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교사들에게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도입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정규수업 외에 뭔가를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악몽과도 같이 여겨집니다. 학교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에게 특수반이나 문제아반을 특별히 따로 더 가르쳐야 하는 업무가 따를 때도 있지만 이는 모두 정규 학교 시간 내에 해야 하는 수업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학교는 맞는 수준을 찾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학생이 어떻게 수업을 받았는지 학습과정은 어땠는지를 정확히 관찰한 문서도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 개개인의 학업을 학교가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핀란드의 학부모들은 학교나 교사에게 따로 각별히 요청하는 바가 없습니다.

4. 핀란드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업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 물음에 대해 이곳 초등학교 교사인 Virva는 단호하게 “없다”고 답하네요.) 초등학생들의 경우, 모르는 숙제를 도와주는 정도이지만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일을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해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학교는 학생이 일하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이 일반 정규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도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개입해서 사교육 등 학교 밖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온전히 책임지고 학업의 수준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주거나 방과 후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등으로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합니다. 이는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학교의 경계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처럼 가정에서 공부를 가르치지도 습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자녀들의 학교 공부에는 그다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 혹은 ‘생활방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5. 핀란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해 주로 어떤 점을 걱정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학교 선택에 가장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9학년에 의무교육이 종료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이 이곳 부모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일쑤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 고등학교 사이의 선택에도 많은 관심을 쏟지만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느냐?'에도 그 못지않은 관심을 쏟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몇몇 학교를 동시에 지원을 해야 하며 그 선발 여부에 마음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조해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결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초등학교 지원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지원할 학교 선택은 학생 본인이 합니다.

핀란드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공부를 나이라는 틀에 맞추지 않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일정한 나이까지 학업을 반드시 마치고 취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언제 어느 때나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구는 적지만 국가가 그 기능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핀란드의 교사들은 대부분 교사과정을 이수할 때 유사한 두 개의 과목을 - 영어와 스웨덴어, 물리와 지구과학, 핀란드어와 러시아어 등 -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핀란드에서는 한 우물만 파온 박사 학위 소지자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고 고학력이 개인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사회 통념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끝낼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 그리고 언제든 필요에 따라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할 수 있는 융통성, 더불어 나이와 상관없이 대학생이 되면 55개월 동안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사회복지 등의 덕분으로 핀란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대해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김 교수님께서 이 인터뷰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더 해주십시오.

엊그제 인터넷에서 '최고의 교육제도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원제: What the best education systems are doing right, 출처: http://ideas.ted.com/what-the-best-education-systems-are-doing-righ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한국과 핀란드의 교육제도 및 교육방식이 극과 극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결과는 두 나라 모두 나란히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교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교육 일선에 종사하며 느끼는 바이지만 교육이 바로 되려면 교육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존중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1950년대에 치렀던 6·25 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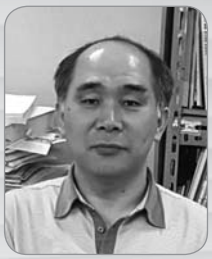
서기까지는 교육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상 당시의 교육 수준이나 환경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이 낙후했을지 모르나 교사에 대한 절대적 존경심이 교육의 성과를 일궈낸 것이라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 혹을 둘밖에 두지 않는 요즘의 가정환경과 높아진 학부모의 학력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교사보다 더 위에 두려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참된 교육보다는 시험을 위한 지식축적을 교육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자격을 갖춘 학교 교사들보다 학원 강사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게 하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의 기반이 이뤄지는 가정에서 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면 학생들에게서 교육자에 대한 존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의 자리를 수년간 꾸준히 지켜오면서도 한국의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못해 조기 유학으로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조기 유학과 같은 상황은 그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업에 전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소위 문제아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학생답지 못한 행동이 이곳에서는 태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원이 없으므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학원 강사에 대한 의존으로 대치될 우려는 없습니다.

두 나라가 역사와 문화, 사회체제 등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제도나 교육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겠으나,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가 존중으로 발전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의 성공을 이루었듯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이 한국에서 향후 계속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교육의 주체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존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소개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세계문화학과 교수

좋은 교과서가 되기까지



김 경 운
신문기획 디자인기획실장

인정도서와의 첫만남…

어릴 때부터 책은 늘 가까이하는 편이었다.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택하였고, 대학 생활 중에 교지 편집에도 관여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평생의 업이 될 줄이야.

졸업 후 얼마의 갈등과 방황 중에 인연이 닿은 곳이 지방의 한 학습지 출판사였다.

학습 교재를 주로 발행하던 회사에 입사하여 처음 마주한 일은 신규사업인 아동도서와 단행본을 개발하는 기획팀의 일원으로 글짓기 교재 편집이었다. 당시는 전자출판이 도입되기 전이라 초보사원에게 주어진 일은 수없이 반복되는 인화지 조판과 오탈자와 씨름하는 원고 교정이었다. 나름 적성에 맞았는지 조금씩 편집자로서의 자질을 키워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차츰 편집 기획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시간을 더하니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고 자리도 조금씩 위로 옮기게 되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알면 알수록 출판에 대한 물음이 많아지고 일에 대한 열정 또한 더해졌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부서에 새로운 과제물이 주어졌다. 교육청의 초등 '우리들은 1학년', '재미있는 한자공부', '재미있는 영어공부'라는 교재를 기획 · 출판하라는 것이었다.

간간이 학교 관련 일을 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교과용 도서 편집은 처음 접하게 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아주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의 교과용 도서 편집이었지만 그때는 교과서와의 첫만남이라는 어색함과 더불어 생소함에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인정도서와의 첫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교과서는 국 · 검정도서 위주였고, 인정도서는 교과서를 보조하는 보충교재 역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도서를 국·검정도서에 비해 가볍게 여기고 쉽게 만들어지는 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보조 역할을 하는 재량시간 교재라 하여도 엄연히 교과서는 교과서인지라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었다.

일선 학교 선생님의 원고를 분석하고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루 하루가 기획 회의의 반복이고 수없이 되풀이되는 수정의 연속이었다. 단원과 타이틀 안을 디자인 팀에 의뢰하고 조판 작업과 교정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한편에서는 컷과 삽화를 구상하고 레이아웃 작업을 병행시켜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안을 만들고,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또다시 수정 작업을 들어가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안이 결정되고 초교작업이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을 얼마나 거쳤을까. 셀 수 없이 진행되는 교정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심사본이 나왔을 때의 기분은 그 동안 반복되는 야근과 철야 작업에 대한 보상이랄까.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감내하리라 다짐하면서 이 맛에 모두들 출판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최종 심사본이 끝이 아니었고 또다른 시작이었음을 알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쏟아지는 수정과 오류를 바로잡아야하는 과정 또한 촉박하기는 매일반이다. 심지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겨우 인정번호를 부여받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유사한 과정을 매번 몇 차례씩 거치면서 정보생활,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등의 인정도서를 개발하면서 세월을 더하는 사이 인정도서의 비중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인정도서의 변화…

인정도서의 근본 취지가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보급과 각 시 · 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고 교육의 다양화, 자율화 정책에 맞추어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교육 현장과 사회적 요구를 최적화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과서 제도가 국 · 검정 중심 체제에서 인정도서 중심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현장 교사들이 개발한 인정도서나 시중 유통 도서도 학교교육과정에 적합하다면 인정 절차를 거쳐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또한 '초 · 중등 교과용도서 국 · 검 · 인정 구분고시'에 의해 구분된 인정도서의 경우, 저작자, 발행사 등이 시·도교육청을 통해 자유롭게 인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 각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인정도서 개발에 필요한 연구 · 집필, 검토·협의, 편집 · 삽화 등을 담당할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정도서 발행사를 선정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정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발행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교과서 발행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교과서 발행에 필요한 교과서 편집·삽화·그래픽 전문가를 보유한 전문 편집 능력과 자체 조직 및 인쇄 · 제본 · 조판 · 제판 시설 등을 갖춘 생산 능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개발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발행사 공모에 선정되어 고등학교 '스포츠 과학', '스포츠 문화', '운동과 건강생활' 개발에 참여하게 되

었다.

인정도서 개발 기획회의 전까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여태껏 작업해 왔던 인정도서에 관련된 자료도 정리하면서 근래 교과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가 싶어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된 교과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 순간, 막연히 교과서가 다 그렇겠지 하는 틀에 박힌 안일한 생각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교과서와 내가 직접 편집하면서 만들어왔던 교과서에 대한 허상은 모두 잊으라는 것이었다.

다양해진 교과서의 판형도 그렇고 편집이나 디자인도 천편일률적인 틀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고 화려하게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수년을 편집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교과서 편집에 자신감을 가졌던 안일한 자만심이 긴장으로 바뀌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획 회의 날, 담당 연구사와 대표 집필자 분들과 면담을 하고 원고를 받았다. 또다시 시작이다.

교과서 개발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 예나 지금이나 시간과의 싸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작업이었다. 항상 끝내야 하는 시간(최종 심사본 제출)은 정해져 있고 이는 고정불변의 진리이니 여기를 기점으로 거꾸로 작업시간을 나누고 또 나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야근에 휴일도 반납하고 심지어 철야까지도 감내해야 하니 편집자가 겪는 긴장감은 늘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처음 받은 원고를 분석하고 시안을 잡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가편집 상태에서 집필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수정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은 교과서가 끝나는 날까지 함께해야하는 공동운명체이다. 교과서 편집에선 초교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통 일반 단행본 작업에선 초교를 거쳐 재교 작업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틀이 잡히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수정되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데, 교과서 편집에선 집필진들이 모여서 편집회의를 하고 나면 그 때마다 내용편집의 삭제와 추가, 수정이 비일비재하기에 늘 초교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서로의 의견 조율이다. 교과서 개발에는 연구진, 집필진, 자문 · 검토, 윤문, 삽화 ·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작업인지라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한곳으로 모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연구진과 집필진의 요구사항을 편집 · 디자인팀에게 전달도 해야 하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도 편집회의 과정에서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일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다. 이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몇 차례 겪고 나면 모두가 한 배를 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3종의 인정도서 면담기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 · 검정 위주였던 교과서 체제를 인정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과서가 모두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각 시 · 도 교육청에서는 시 · 도 교육청별 심의 및 개발 교과 분담 계획대로 전문계 고등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정도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검인정교과서에서 발주한 '2015학년도 시 · 도 개발 인정도서 제작 및 납품' 조달청 입찰에

응찰하여 53종의 전문교과 인정도서를 만나게 되었다. 각 시 · 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전문계 고등학교 인정도서 150여 종을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전년도의 교과과정에서 수정·보완사항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기타 한국검인정교과서의 요청에 따라 편집 및 수정을 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인쇄 및 감수, 제본하여 일선 학교의 신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검인정교과서에 납품하는 사업이다.

각기 다른 53종의 전문계 인정도서의 다양성에 새삼 놀라면서도 일정치 않은 제작 부수, 각기 다른 판형과 면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수월한 것이 없었다.

출판이란 것이 한 권을 제작하나 만 권을 제작하나 모든 공정을 다 거쳐야 완성품이 나오는 작업인지라, 이 또한 스무날 일이라는 납기공정이 정해져 있어 시간과의 싸움은 필연적이었다.

인쇄용 PDF 파일과 인쇄견본을 쪽수별로 하나 하나씩 바르게 수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결코 녹녹치가 않았다. 촉박한 시간에 워낙 종류가 많기도 하고 자칫 하나라도 놓치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확인이 끝난 과목은 출력실로 파일을 넘기고, 수정이 있는 파일은 수정 작업을 마친 후 또 한번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출력실로 보내질 수 있었다.

CTP 출력이 끝난 과목은 판형의 크기가 같은 것끼리 분류하여 인쇄작업을 진행하고, 인쇄가 끝난 과목은 가제본 상태에서 최종 검수를 받아야 했다. 이후에야 제본이 되어 완성된 교과서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 중간중간에 CD, 포장박스 주문 등 부서간 업무조율을 하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스무 날이 어느 새 저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완성된 교과서는 과목별로 분류되어 포장상자에 들어가서 한국검인정교과서로 실려 갔다. 이제 거기서 전국의 각 일선 고등학교로 보급되어 학생들의 책상 위에 놓일 날도 머지 않았겠지.

지금껏 교과서 개발을 하면서 편집만 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요번 일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과 정성을 거쳐야 한 권의 교과서가 탄생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인정도서가 좋은 교과서로 거듭 나기를…

교과서 개발에는 늘 최소한의 시간만이 주어진다. 그래서 언제나 정중동(靜中動)이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쉬지 않고 부단히 움직이고 있음이다. 연구진, 집필진부터 생산현장까지 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더 나은 교과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과서 개발은 반복적으로 수정과 감수작업을 해야 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다.

점적천석(點滴穿石), 처마의 빗방울(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고 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모이고 쌓이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글귀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인정도서가 좋은 교과서가 되기까지 쉼없이 정진하는 집필진과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출판인 모두의 건투를 기원해 본다.

필자소개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스무한 해째 책과 씨름하고 있는 출판장이이다.

학습자 주도적 탐구형 세계지리 교과서

손 명 철
제주대학교 교수

Ⅰ.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매체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지식을 요약하고 압축하여 담아 놓은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고가의 참고서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사교육 시장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이 글은 영국의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를 사례로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교과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교과서란 곧 학습자가 수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지식 탐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과서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은 영국의 교과서는 「World Geography: Case Studies」(Vincent Bunce, ed., 1994,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하 '영국 교과서'로 칭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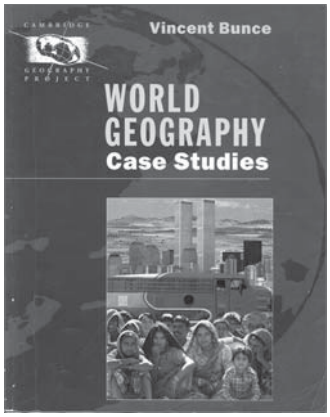
Ⅱ. 영국의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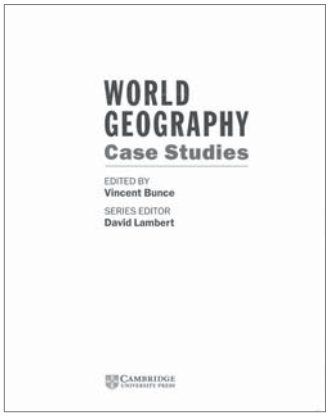
1. 내용 구성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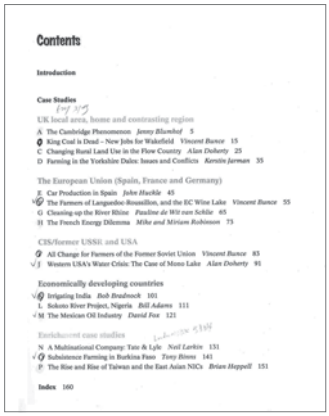
1) 전체적인 내용 구성: 사례연구 방식

한국의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는 교육과정 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앞부분에 계통지리(지형, 기후, 자원, 종교 등)를 먼저 배치한 후 대륙별로 지역지리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역지리 부분은 다시 대륙별이나 문화권별 혹은 경제수준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대단원을 구성하는데, 지역구분 방식이 어떠하건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을 다루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영국의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이하 영국 교과서)는 한국의

교과서와는 달리 특정 주제나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연구(Case Studies)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가능하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영국의 교과서는 문제해결력과 탐구력, 그리고 학습 전이력 함양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 교과서 서문에서는 사례연구 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주제나 이슈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주제와 관련된 특정 지역이나 상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세계지리를 이해하는 데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5개 지역에 걸쳐 모두 16(Case Study A~P)개로 구성된다. 우선 5개 지역은 영국, 유럽연합(스페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미국, 개도국, 그리고 보완적인 사례연구 지역으로 구분된다. 사례연구 수가 16개나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교과서 분량이 사례연구 당 10쪽 미만이며 전체 160쪽에 불과하다. 판형은 현재 한국의 세계지리 교과서(210mm x 270mm)보다 약간 더 큰 220mm x 275mm 정도이다. 사진, 지도, 삽화, 표 등이 풍부하며, 모든 면이 백색 아트지에 선명한 원색으로 인쇄되어 가독성이 높다.

사례연구 방식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산업별, 대륙별, 경제발전 수준별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슈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관점이 서방 선진국이나 개도국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도 보여준다.

2) 각 장의 내용 구성: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방식

전체 16개 사례연구 각각이 하나의 장(chapter)을 이루어 모두 16개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표지를 포함하여 모두 10쪽 이내의 분량을 가진다. 장별 내용 구성은 대동소이한데, 각 면별로 내용 구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면은 주제와 관련된 연한 배경사진 위에 제목, 단원 개요(혹은 단원 설정 이유), 학습자의 역할과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도로 구성된다. 붉은색으로 쓰인 큰 글씨의 제목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도는 고등학생용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요소만 표기하여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인상을 주며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둘째 면에서 일곱 번째 면에는 핵심질문(Key Question) 3개와 핵심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료들(Resources), 그리고 핵심질문과 연계된 구체적인 학습활동들(Activities)이 제시된다. 대체로 핵심질문 1과 이와 관련된 자료 및 학습활동들이 둘째와 셋째 면에, 핵심질문 2와 관련 자료 및 학습활동들이 넷째와 다섯째 면에, 그리고 핵심질문 3과 관련 자료 및 학습활동들이 여섯째 면에서 여덟째 면까지 이어지는데, 여덟째 면의 아래 절반 정도에는 보충학습활동(Further activities)이 제시된다. 따라서 핵심질문 한 개당 왼쪽과 오른쪽 두 면을 할애하여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편리하게 해당 핵심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홉 번째 면의 내용은 장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 보충학습활동이나 평가활동(Assessment activity)이 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 면에는 공통적으로 주요 용어(Key Terms) 설명과 단원 정리(Key Understandings)가 배치된다. 이처럼 각 장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된다.

2. 학습자 주도적인 교과서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장치

학습자 주도적인 교과서란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를 말한다. 이러한 교과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강한 내적 동기와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것을 보다 오래 기억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영국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요 장치 혹은 전략을 통해 학습자 주도적인 교과서 상을 구현하고 있는데, 각 장의 첫 면에 학생의 역할과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명시하는 것, 그리고 장의 전체 내용 요소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개되면서 일종의 시나리오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1) 학생의 역할과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 명시

영국 교과서는 각 장의 첫 면에 제목, 단원 개요, 해당 지역의 지도와 함께 그 장을 학습할 때 학생에게 부여된 역할과 학생이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를 명시한다. 이 부분은 특히 포스트잇을 빨갛고 둥근 머리를 가진 네 개의 침이 고정하고 있는 형태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학습자는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통해 각 장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가 무엇인가를 미리 인지함으로써 학습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책무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된다. 사례연구 F를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사례연구 F의 첫 면에는 '랑독-루실롱의 농부들과 유럽연합의 와인 호수'라는 제목과 함께 단원 개요, 학생의 역할과 수행 과제가 제시된다. 우선 단원 개요는 학습자가 각 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과 이슈, 맥락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장의 단원 개요를 소개한다.

> '신문들은 종종 '버터 산'(butter mountains), '소고기 산'(beef mountains), 그리고 '와인 호수'(wine lakes)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들은 모두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농부들이 과잉 생산해 놓은 산물들이다. 프랑스 남부 랑독 지역은 지난 수십 년 간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이탈리아와 작은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 같은 농산물 과잉생산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처들이 강구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원 개요 바로 아래에 글상자 속에 학생의 역할과 주요 수행과제가 제시된다.

> 당신은 이제 막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 농업이사회에 수습이사로 취임하였다. 농업이사회는 농산물 잉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당신의 첫 번째 임무는 이러한 잉여물이 왜 발생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당신은 또한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처들이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당신이 조사하도록 요청받은 지역은 프랑스 남부 랑독-루실롱이다.

이처럼 영국의 교과서는 각 장의 첫 면을 통해 학생들이 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과 수행과제를 명료하게 인지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되면서 일종의 시나리오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2) 모든 내용을 스토리가 있는 일종의 시나리오 방식으로 전개

학습자에게 역할과 수행 과제만 제시하는 장치만으로는 명실상부한 학습자 주도적인 교과서라고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할 것이다. 영국 교과서는 역할과 과제 제시와 함께 향후 학습자가 자신의 역할과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와 활동 과정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나의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만들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사례연구 F를 통해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유럽연합의 농업이사회 수습 이사로 취임한 학습자는 핵심질문 1 '랑독-루실롱 지역에서는 어떤 농업이 행해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이에 답변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의 자료 파일을 뒤지다가 유럽연합 농업이사회가 이미 조사해 놓은 유럽연합의 소단위 지역별 농업 현황 파일에서 '단보 번호 25 - 랑독-루실롱'이라는 파일을 발견한다. 이 파일에는 랑독-루실롱 지역의 농업 현황과 최근의 변화 추이가 간략하면서도 내실 있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 자료 파일과 함께 교과서에 제공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교과서 오른쪽 아래에 제시된 상세한 학습활동들을 수행해가면 결국 핵심질문 1에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 다음 핵심질문 2 '왜 유럽연합에는 와인 과잉 생산 현상이 나타납니까?'라는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도 앞에서와 유사하게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학습자는 자료 파일에서 농업 전문 자문기관인 페닝턴 그룹(The Pennington Group)에서 작성한 '랑독-루실롱의 포도 재배'라는 파일을 찾아낸다. 이 파일에는 랑독-루실롱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전 세계의 포도재배와 와인 무역 현황을 설명하고, 유럽연합에서 와인 과잉생산 현상이 나타나는 다각적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자료를 찾아 핵심질문에 답할 때도 그 답변 방식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 '위에 있는 학습활동의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당신이 브뤼셀에 있는 농업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할 발표문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3~4분간의 설명을 통해 왼쪽 상단에 제시된 핵심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당신은 유럽에서 와인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 2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 당신은 발표문을 준비하는 데 2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이 발표문을 당신의 학급이

나 모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제시된 핵심질문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답변하느냐에 따라 다음 12개월 동안 당신이 받을 보수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이니 부디 잘 해내길 바랍니다!'.

위에 인용한 내용 중 우수한 발표문 작성과 성공적인 발표를 향후 1년간의 보수 수준과 연계시킬 것이라는 언급이 인상적이다. 이는 일면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부추겨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표현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3. 탐구형 교과서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장치

탐구형 교과서란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를 말한다. 이러한 교과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사물을 관찰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 이는 또한 학습자에게 많은 사실과 개념, 지식들을 암기하도록 하기보다는, 그러한 개념과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를 지식 창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국 교과서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해 탐구형 교과서 상을 구현하고 있는데, 사회과학적 탐구 절차를 보여주는 핵심질문의 제시, 그리고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 혹은 지리적 지식의 구조를 보여주는 전문적인 자료와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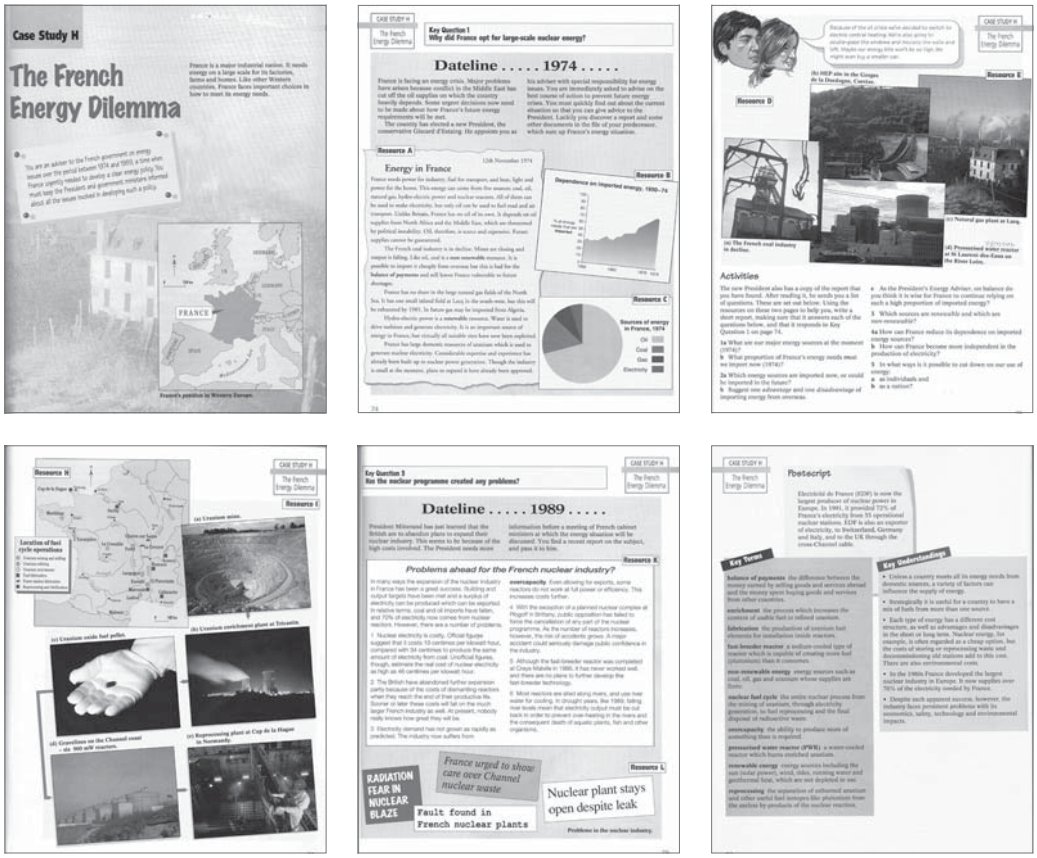
1) 사회과학적 탐구 절차를 보여주는 핵심질문들

영국의 세계지리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장별 사례연구 방식을 취하면서 각 장마다 3개의 핵심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핵심질문들이 내용 면에서 마치 과학자들의 연구 절차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를 테면 이들 핵심질문은 대체로 1단계: 현상의 이해 혹은 실태 파악과 문제점 도출, 2단계: 원인 찾아보기, 그리고 3단계: 해결책 제시 혹은 개선방안 마련의 순서로 전개된다. 실제로 몇 개 장의 사례를 제목과 함께 살펴보자.

우선 사례연구 H를 보면, 1970년대 초 제1차 오일쇼크 이후 프랑스는 국내의 부족한 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개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1990년대 초에 이르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원자력 에너지 대국으로 성장하지만,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학습자는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담당 자문관으로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각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례연구 H: 프랑스의 에너지 딜레마

- 핵심질문 1: 왜 프랑스는 대규모 원자력 에너지 개발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 핵심질문 2: 프랑스는 어떻게 원자력 산업 대국의 야망을 실현하였는가?
- 핵심질문 3: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는가?



사례연구 J에서는 미국 서부의 물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모노 호수는 중요한 조류 서식지이며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그런데 남부의 여러 도시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 호수로 유입하는 하천들의 유로를 전환함으로 인해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주 상원의원의 비서관으로서 모노 호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례연구 J: 미국 서부 지역의 물 위기: 모노 호수를 사례로

- 핵심질문 1: 미국 서부 지역의 물 자원은 왜 특별히 잘 관리될 필요가 있는가?
- 핵심질문 2: 로스엔젤레스로의 지속적인 유로 변경이 모노 호수에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은 무엇인가?
- 핵심질문 3: 모노 호수의 생태계는 보호될 수 있을까?

사례연구 P는 대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4개 신흥 공업국가들의 제조업 성장 과정과 성공 요인, 그리고 향후 전망을 다룬다. 여기서 학습자는 지리학자, 경제학자, 제조업체 사장 등이 포함된 영국의 사절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하는 대표자인데,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전자산업에서 성공한 요인을 조사하여 귀국 후 각료회의에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사례연구 P : 대만의 부상(浮上)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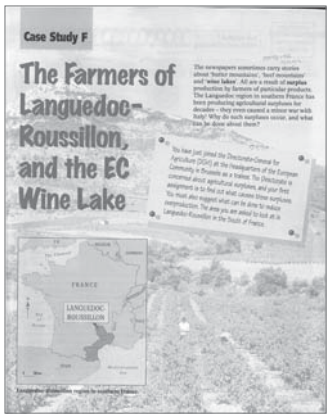
- 핵심질문 1: 대만과 같은 신흥 공업국가들은 어떻게 공업국가로 성공할 수 있었나?
- 핵심질문 2: 대만의 전자산업 입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무엇인가?
- 핵심질문 3: 기술이 대만의 산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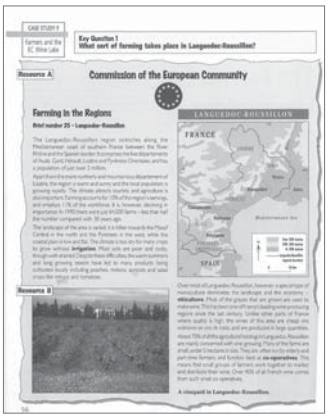
위에 인용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핵심질문은 반드시 자연과학적인 연구 절차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회과학적인 연구 과정과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교과서를 이용해 학습활동을 수행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과학적인 탐구 과정을 익히고,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가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는 단순한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 생산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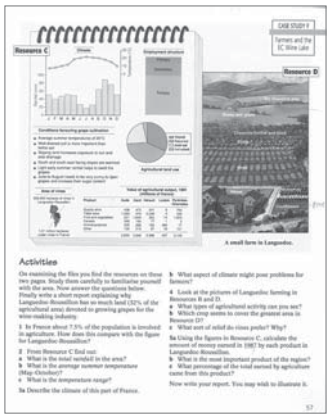
2)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 혹은 지식의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와 활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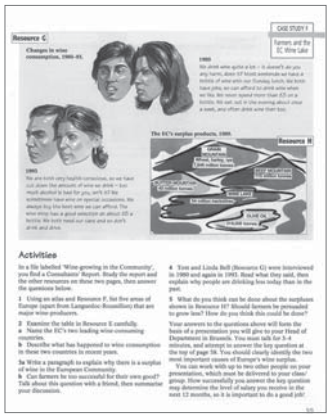
지식의 구조란 브루너(Bruner, J. S.)가 교육내용을 지칭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는 각 학문의 기본 개념이나 일반적 원리 또는 핵심적 아이디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문의 방법상 원리나 학문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리학은 입지(location), 거리(distance), 규모(scale), 이동(movement), 공간적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 등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지역(region)과 장소(place), 그리고 공간(space)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영국의 세계지리 교과서는 이와 같은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 혹은 지리학적 지식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자료와 학습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 교과서로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리학자들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관점과 사고, 세계관을 함양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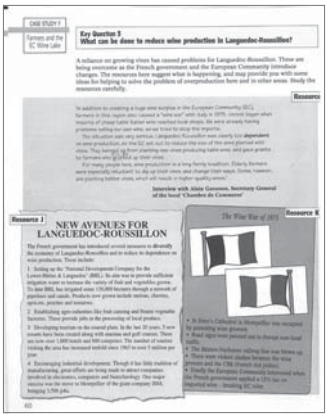
- **사례 1 : 사례연구 F(랑독-루실롱의 농부들과 유럽연합의 와인 호수)의 보충학습활동 중 <도서관과 전문 연구서를 이용해 해결해야 할 과제 활동>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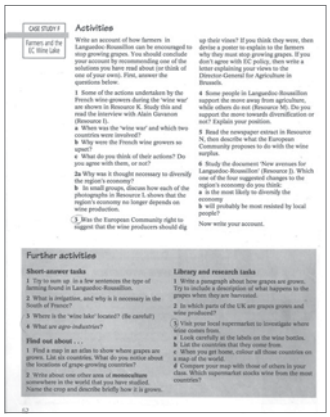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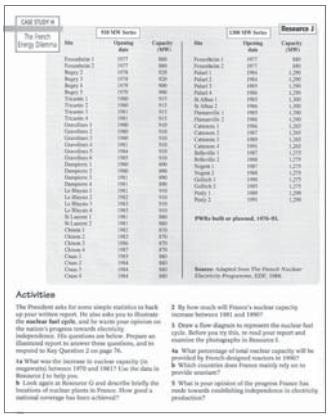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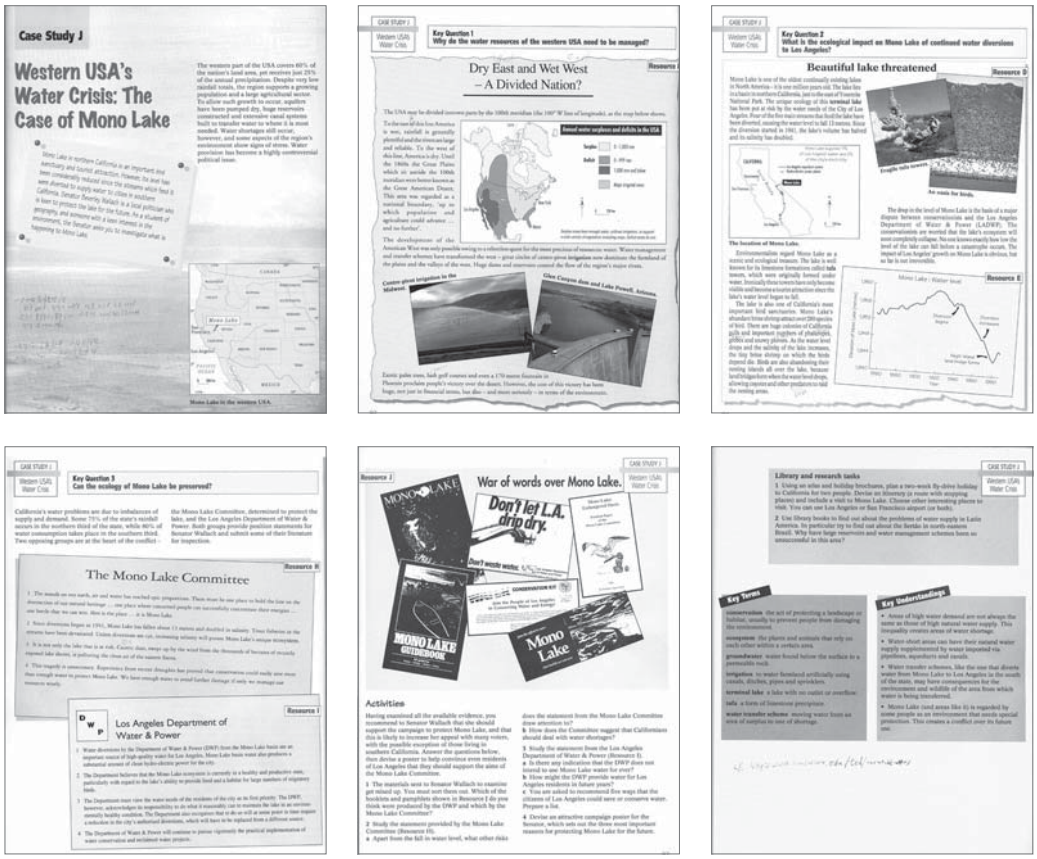


3. 와인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돼 왔는지를 조사해 보기 위해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퍼마켓을 방문해 보시오.

a. 와인 병에 붙은 상표를 잘 살펴보시오.
b. 그것들을 생산한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하시오.
c. 당신의 집에 돌아오면, 세계 지도 위에 그 나라들을 모두 색칠해보시오.
d. 당신이 색칠한 지도와 학급의 다른 친구들이 색칠한 지도를 비교해보시오. 어느 수퍼마켓이 가장 여러 나라의 와인들을 진열하고 있습니까?

위의 학습활동은 기본적으로 거리, 이동, 공간적 상호작용 같은 지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수퍼마켓의 계층화(hierarchy)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어렴풋이나마 중심성(centrality)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 활동에는 지리학의 기본 개념이나 핵심 용어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지 않지만, 학습자들은 이러한 학습활동을 통해 지리학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2 : 사례연구 J(미국 서부 지역의 물 위기: 모노 호수를 사례로)의 핵심질문 2에 제시된 자료 D에서 인용



<아름다운 호수가 위협받고 있다>

모노 호수는 북아메리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수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약 100만년이나 되었다. 이 호수는 북부 캘리포니아의 분지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요세미티 국립공원 바로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종말호수(terminal lake)의 고유한 생태계가 로스엔젤레스에 물을 공급하느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호수로 유입하던 5개의 주요 하천 중 4개의 유로가 전환되었는데, 이는 호수의 수위를 13m나 낮추었다. 1941년 유로전환이 시작된 이래, 호수의 유량(溜量, lake's volume)은 반으로 줄어들고 염도는 2배로 증가하였다. 환경론자들은 모노 호수를 경치 좋은 생태학적 보고(寶庫)로 여긴다. 이 호수는 tufa탑이라 불리는 석회암 조형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원래 물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비로소 이들 탑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이 호수는 또한 캘리포니아의 가장 중요한 조류 서식지들 가운데 하나이다. 모노 호수의 풍부한 바다새우가 280여 종 이상의 새들을 유혹한다. 이 곳은 또한 캘리포니아 갈매기의 거대한 서식지이며 희귀종인 깝작도요류, 농병아리, 그리고 흰색 물떼새가 살고 있다. 수위가 떨어지고 호수의 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새들의 먹이가 되는 작은 바다새우가 죽어가고 있다. 새들도 또한 호수 면에 산재한 섬들에 마련했던 둥지를 포기하고 있는데, 수위가 낮아지면서 육교가 형성되고 이는 곧 코요테나 다른 약탈자들이 새들의 둥지까지 침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노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는 환경보호론자들과 로스엔젤레스 수력국(LADWP) 사이에 주요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호수의 생태계가 조만간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호수의 수위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대재앙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로스엔젤레스의 성장이 모노 호수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용 속에 포함된 지도와 사진, 그림은 생략하였음).

위 자료는 유로 변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모노 호수 생태계의 변화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환경보호론자들과 로스엔젤레스 수력국 사이의 갈등을 구체적이고 실감 있게 기술하고 있다. 지리학은 자연, 인문, 사회적 현상에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물이나 현상을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이다. 모노 호수의 생태계 변화와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관련 이해 집단들의 갈등을 다른 어떤 학문보다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지리학이라는 사실을 학습자들은 이 자료를 통해 깨닫게 될 것이다.

Ⅲ. 교과서,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지금까지 한국의 교과서는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압축하여 나열해 놓고 교사들의 설명을 통해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도구였다. 이런 교과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강한 동기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지식 생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의 소비자로 머물게 할 우려가 있다.

영국의 세계지리 교과서는 다양한 주제나 이슈에 초점을 둔 사례연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가지 교육적 장치 혹은 전략을 통해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교과서를 구현하고 있다. 첫째, 각 장의 맨 앞면에 학생에게 부여된 역할과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를 명시해줌으로써 학습자가 분명한 학습목적과 목표를 인지하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각 장의 모든 내용과 학습활동을 일종의 시나리오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전개하여, 내용 요소들 간에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셋째, 장별로 핵심질문을 3개씩을 배치하여 이에 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과학적 탐구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나 활동들이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 혹은 지리적인 지식의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학습한 학생들은 지리

학자들과 유사한 관점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탐구형으로 구성된 교과서이면서도 실증적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 관점과 인간주의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더불어 우스꽝스런 시사 만화나 엉뚱한 질문 등을 삽입하여 자칫 탐구형 교과서가 줄 수 있는 딱딱한 인상을 완화시키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교과서의 머리말 마지막 문장이 매우 시사적이다: '끝으로, 여기 있는 사례연구들을 즐기세요!'(Finally, enjoy these case studies!)

최근 한국에서는 교과서 논쟁이 한창이다. 교과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이념 논쟁에만 휩싸여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 글이 교과서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이 시대 한국의 초 · 중등학교 학생들의 품에 기꺼이 안겨 줄만한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지, 그리고 그것은 누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손명철(2013)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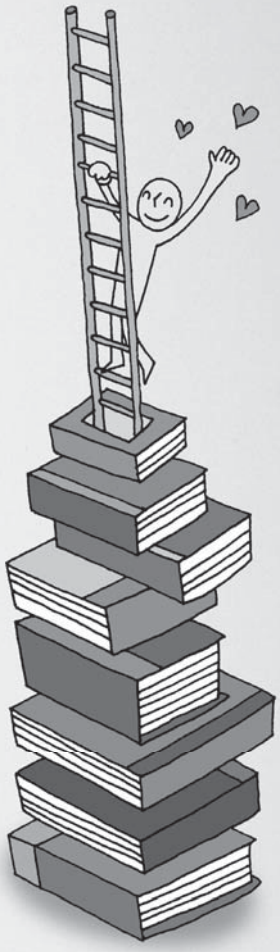
- 교육과학기술부(2010). 보도자료: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
- 김만곤 외(2010). 특별대담: 교과서 선진화의 길. 교과서연구, 60, 27-43.
- 손명철(2013).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세계지리 교과서 모형 탐색 -영국의 고등학교 <World Geography: Case Studies>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17-128.
- Bunce, Vincent, ed. (1994). World Geography: Case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필자소개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교수

지리교육, 다문화교육, 지역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음

교과서와 씨름하며 인생을 배워오다



이 규 석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70년대 초 교직에 첫발을 딛고 받아든 교과서는 내가 학창 시절에 교과서를 받아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기분이 아주 좋았다는 점이다. 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 교과서를 받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인 1-2 셈본 교과서로 기억된다.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시골의 작은 학교 월요 운동장 조회 때 전교생 앞에서 낭독하라고 국어 교과서를 빌려 주셨는데 국어 교과서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귀가 후 토요일과 일요일을 집안 심부름 하는 일과 밥 먹는 일 빼고는 그 교과서를 읽고 또 읽었었다. 선생님께서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읽으라는 단원도 읽기는 했지만 월요일에 낭독하라는 숙제는 까맣게 잊고 국어 교과서를 통째로 읽고 재미있는 단원은 반복해서 읽다보니 어느새 월요일이 되었다. 비가 오는 관계로 방송 시설이 없던 시절이니 전교 조회는 취소되었고 그 날 국어 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국어 교과서를 운동장이라 생각하고 우리 반 학생들 앞에서 크게 낭독하라는 것이었다. 반복해서 읽은 적도 없고 잠도 부족한데다 비 오는 날의 추위까지 겹쳐 내가 생각해도 잘 읽지 못했다. 나의 낭독이 기대에 못 미쳤는지 선생님께서 혼잣말로 작게 '비가 오길 다행이다'라고 하셨는데 내게는 그 후에도 오랜 동안 그 목소리가 우레 소리처럼 들렸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고 싶었다. 나는 혼자 다짐했다. '우쭐하지 말자.' '맡겨진 일은 책임 이상이 되도록 준비하자.' 먼 훗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 '한 번 실패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보자.'

초등학교 4학년 때도 교과서는 선생님만 가지고 계서서 우리는 열심히 노트에 쓰기만 했고 5학년 때가 되어서야 교과서를 제대로 받았다. 그러니 교과서만 받았다 하면 너무나 기뻤고 집에 오면 식구들에게 자랑을 했다. 얼른 비료포대 종이로 겉을 싸서 소중하게 다루었고 어쩌다 어린 동생이 물이라도 엎질러서 책이 젖으면 집안이 온통 난리였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국어와 사회 교과서부터 차례로 새 교과서를 모두 읽어보았다. 책을 보기가 어렵던 시골이었다. 그리고 그 때 새로 받은 교과서에서 나는 냄새는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른다.

78년에 처음으로 참고서를 공동 집필했고, 곧 이어서 처음으로 출간되는 '탐구생활'에 '서리와 성에'라는 글을 써서 싣게 되었다. 비록 누가 쓴 것이라고 이름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 무렵 내가 다른 동료들과 공동으로 지은 '학력고사 마무리 과학'은 30만 권, 지학(지구과학)은 40여 만 권이나 팔리는 대박이 났었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 일을 도우면서 초등학교 자연(과학) 교과서 작업에도 관여하여 교과서에 눈을 떠갔다. 드디어 82년 고등학교 교과서를 써서 검정 출원했으나 보기 좋게 떨어졌다. 영세한 출판사로 교과서 검정 출원을 위해 임시 고용된 편집진이 급여 불만 등으로 이직을 해서 저자인 우리가 사식 교정을 하고 심지어 삽화까지 손을 보는 처지가 되었다. 조그만 편집 사무실에서 빵으로 저녁식사를 때우며 고군분투했지만 첫 도전에서 노력과 인내만으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첫째는 자신의 실력이 중요하고, 살아갈 만큼의 비빌 언덕을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던 차에 편수관실 연구사 공모가 있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 면접고사를 거쳐 84년 3월에 발령이 났다. 교과서를 직접 만든다는 것이 꿈만 같았고, 훌륭한 편수관님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고무되었다. 후일 지나면서 느낀 것이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없지만 교과서 만드는 일은 글, 삽화, 인쇄 등을 한 땀씩 떠가는 바느질처럼 인내가 필요한 종합적, 융합적인 업무였다. 갑갑하고 답답한 적이 없지 않았고, 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보람은 있지만, '과연 잘 만든 것인지, 다른 사람이 만들면 더 잘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염려가 되었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교과서 편수 업무가 아닌 내 인생도 이와 유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교과서와 씨름하는 편수일보다는 마음이 가볍다. 내 개인의 일이니까 그만큼 부담이 적은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더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교과서 편수 업무에서 얻은 마음이 그대로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도 배어나오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그렇게 생활하며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 당시를 지금 생각해보면 한 가지 직무만 계속 하고 있으면 낙이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장학직으로 이동하든지 이미 87년인가에 교감 자격증을 받았으니 나갈 때가 많이 지났는데 학교로 빨리 나가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고등학교로 가면 집도 가깝고

좋으니 신청하라는 배려의 말씀도 들었었다. 그러나 그때 나의 멘토였던 분들과 그리고 존경하는 분들이 편수국에 계셨고 그분들께서 편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편수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지냈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출원 교과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이 끝나면 캐나다로 떠나는 연수단의 단장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다. 교과서 검정 업무를 마치자마자 교육부에 복귀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바로 94년 7월 16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다. 계속하여 나도는 편수국의 존폐 문제와 편수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취 때문에 어수선하여 가고 싶지는 않았으나 단장으로 8월 29일까지 무려 45일간이란 긴 기간의 연수를 위하여 연수단을 이끌고 출발했다.

연수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밴쿠버에서 1박을 하고 비행기를 탔다. 출발할 때 그곳 한인 신문을 누가 구해왔는데 거기에 내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에 교감으로 간다는 발령이 나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이미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과 면세점이 있는 곳에서 재 캐나다 한국인 발행 신문을 얻어서 보기 시작한 때였다. 비행기에 탄 상태에서 발령이 난 기사를 처음 읽어 본 것이다. 곧 비행기가 뜨려고 엔진 시동을 걸고 있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편수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궁금함과 고뇌로 좌불안석인 상태였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 의외성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 내가 모셨던 분들과 나를 아껴주었던 분들이 생각났다. 교육부 근무 10년 반 동안 편수 직열에서 훌륭한 선배님과 동료를 많이 알게 되었고 그분들로부터 엄청나게 배웠으며 분에 넘치는 사랑도 받았다.

8월 29일 저녁에 김포 공항에 내리자마자 직속상관께 전화를 드려서 10년 이상 편수에 있던 사람은 다 나가게 되었음을 알았고 다음날 아침 중앙 주요 일간지에는 편수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기사가 꽤 크게 취급되어 실려 있었다. 전문가를 키우지는 못할망정 주위의 유혹을 뿌리치고 편수인으로 성장하겠다는 사람을 10년 넘었다고 풍비박산을 내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후 신문에서는 편수에 대한 연재기사가 나왔는데 교육부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었다. 이 지적에 대한 시정을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편수를 위해 특채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1977년 소위 편수 파동이 이유야 어쨌거나 편수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만든 것이라면 1994년 1월부터 이후 2년여 동안은 외부로부터 편수국을 없애는 등 편수조직을 약화시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였다. 그 후 1997년 신교육체제를 수립한다고 개정한 7차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이 교육과정은 다른 복합적 원인이 있었지만 현장 특히 노조의 강한 반발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2013년 '한국사' 교과서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편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지가 2년이 다 되어가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왜 유독 '한국사' 교과서만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사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려

한다든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다. 말이 나온 김에 보탠다면 다른 교과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조새'에 대한 논란을 시발점으로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같은 발언이 나온 적이 있다. 2012년 당시 뉴욕타임스에는 IT강국인 한국이 창조론을 보통교육에서 교육하려 한다고 조롱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교육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물론 교과서는 과거처럼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 교육 자료 중에 하나임을 이미 모두 잘 알고 있다. 교과서 무용론이 나온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발전에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내걸고 시도되는 교과서 정책은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교과서 전문가가 있게 된 연후에 도입 가능성 여부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자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시대적 요구지만 종이 교과서의 운명은 두 종류의 교과서가 병행되면서 시장 즉 교육 현장에 맡겨져야 한다. 교육 현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시행하는 시험 대상이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내가 대표저자로 있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는 합격한 9개 출판사 책 중에 채택 1, 2위를 하고 있고 이 두 출판사가 전체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과반을 넘게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하게 될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저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다. 생각해보면 1978년 문교부가 처음 개발한 '탐구생활' 책 만들기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79년 참고서와 문제집 개발, 1980년부터 4년간 EBS 출연교사, 1982년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검정 교과서 저자, 1984년 국정교과서 개발 책임자의 일원이면서 편수인으로 출발한 이래 교육부에 들어가서는 교과서 편수 일, 서울시 교육청 소속일 때는 교과서 저자로서 1978년 이래 지금껏 교과서와 씨름하며 살고 있다. 교과서 개발에는 참으로 긴 여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니 복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1984년부터 1994년까지 편수담당자로 일하게 된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당시만 해도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일 만큼 높은 때였는데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일한다는 것은 큰 보람이었다. 이에 더하여 기라성 같은 실력자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즐거움, 특히 이분들은 항시 수평적 토론을 함은 물론 학회 못지않은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글을 썼고, 편수를 했으며 행정도 했다. 교육부의 다른 부서로부터 부러움과 질시를 함께 받았지만 학회 활동이 자유로워 교과 내용에 대한 실력을 쌓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교과용 도서의 쟁점 내용을 학회와 각계 권위자를 통해 평소에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 중 특히 개념이나 용어 사용 등에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설혹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19층 도서실에 시간이 되는 편수국 직원이 모여 전문적, 행정적인 토의 토론을 했다. 당시에는 시간내기가 힘들고 때로는 업무상 참석이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편수 조직만이 가졌던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모임에는 편수국 50여 직원 중에 반 이상이 항상 참석하였고, 편수 전문가로서 견문을 넓힘은 물론 아울러 자세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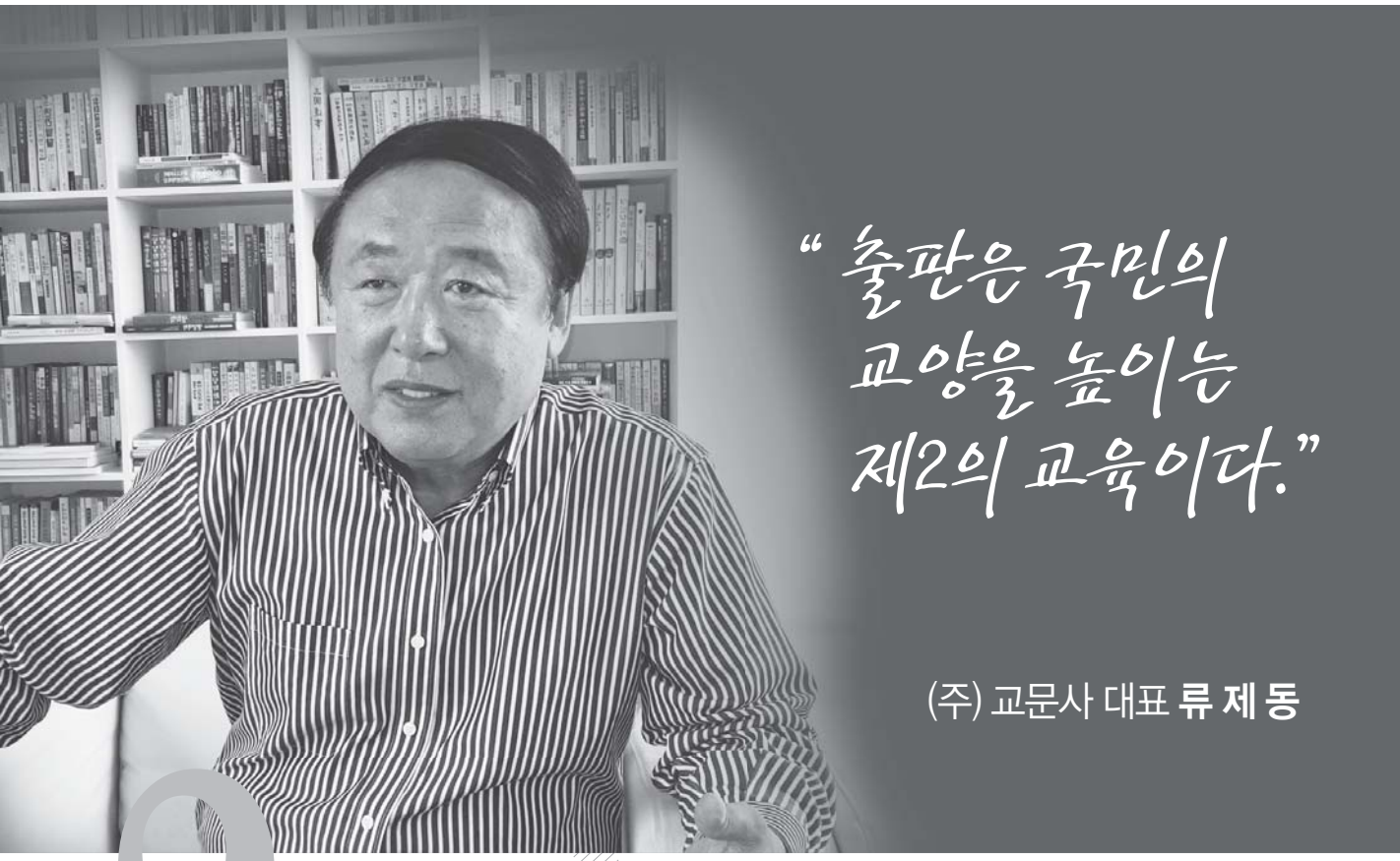
다듬는 엄청난 기회였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국내외 저명 교육학자를 모셔서 특강과 토론을 했던 일도 기억에 새롭고, 편수 담당자가 돌아가며 자기의 연구물을 모든 편수 담당자 앞에서 발표하게 했던 시간들도 소중한 경험이었다. 아마 이 정도로 실무와 학문을 익히도록 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교육부 관료가 할 범위를 넘어선다고 이따금 비난했는지도 모른다. 교육부와 교육현장을 넘나들며 승진에만 마음을 쓴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하여 모두가 최고급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당시의 면면이 생각나는데 그런 대가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었음에 여전히 자부심을 느낀다. 두 번에 걸쳐 교장을 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교육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2009년 교육공무원으로서 퇴임한지 1년이 넘는 사람이 39대 1의 공모를 거쳐 다시 교육부에 들어가 24개월을 봉직할 수 있었던 것도 편수에서 10년 반 동안 일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편수 일에서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과서 관련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때 훌륭한 분들에게서 받은 정신과 가르침이 뒷받침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에 대한 멘토는 물론이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 시절에 모셨던 분들이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마구 떠들 수는 없지만 교과서와 씨름하면서 생활해 왔고, 감히 말한다면 삶의 지혜도 배워왔다. 우직하고 느리지만 모나지 않는 미완성의 인생은 내 나름 아름답다 말하고 싶다. 글을 쓰면서 관련되신 분의 존함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셨더라도 밝히지 않았다. 내게는 고마웠던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대부분 뵐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하다.

필자소개

전) 교육부 자연과학담당관실 편수담당자를 거쳐 서울시 교육과학연구원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서울고등학교 교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역임.

저서 오직 한마음으로(교육 시론집), 중학교 과학 교과서(공저) 등 50여 권

(현) (사)한국문인협회서울시지부 이사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상임이사 등 사회와 학교를 위한 봉사활동



“출판은 국민의 교양을 높이는 제2의 교육이다.”

(주) 교문사 대표 **류 제 동**

Q&A

정오의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저녁노을이 붉은 유월.

빌딩사이로 언뜻 언뜻 사라졌다 보이는 노을이 장 르랑수아 밀레의 ‘만종’을 연상시킨다. 반세기를 넘긴 교문사의 류제동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이 섬소년 뭍 나들이마냥 즐겁다. 사람을 만나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는 것처럼 언제나 설레게 한다. 그것도 책을 만들어온 사람이니 오죽할까? 손때 묻은 교과서를 보고 또 보며 울기도 웃기도 한 사람. 그를 만나 물었다.

교사에서 출발해 책으로 자리잡다.

요즘처럼 빠른 변화의 시대에 50년 넘게 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교문사는 류제동 대표의 부친인 류국현 회장이 을

지로5가에서 출판사를 세운 해가 1958년이니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설립 당시 "책은 국민의 교양을 높인다. 출판은 '제2의 교육'이다"라는 창립이념을 갖고 시작해 지금껏 출판업 하나만 보고 외길을 달려왔다. 을지로에서 시작해 필운동 사옥을 거쳐 현재는 파주출판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교문사는 식품영양, 유아교육, 의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도서를 출판한다. 이들 책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학술원 등이 선정하는 우수학술도서에 여럿 선정되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 역시 주요 출판 분야이다.

"국민 교양 함양과 교육을 위한 출판에 매진했으니 교과서 개발은 필연적이었다고 봅니다. 류국현 회장님이 교사 출신이어서 교과서 분야에 관심을 뒀던 것도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교문사는 일반책 중심에서 벗어나 교과서 출판에 뛰어들었고 1970년대부터 영어, 수학, 지리부도, 음악, 기술·가정 등 여러 과목을 개발해 왔다. 대형 출판사처럼 전 교과목의 교과서를 내기보다 '자신 있는 교과목에 역량을 모두 쏟는다'는 생각으로 양보다 질에 승부를 걸고 있다. 교문사에 유독 학술서적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교과서에만 집중해야겠단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육을 넘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시켜주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출판은 학교 교육 이상의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문사는 교과서 출판에 뛰어들었고 1970년대부터 영어, 수학, 지리부도, 음악, 기술·가정 등 여러 과목을 개발해 왔다. 대형 출판사처럼 전 교과목의 교과서를 내기보다 '자신 있는 교과목에 역량을 모두 쏟는다'는 생각으로 양보다 질에 승부를 걸고 있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교과서에만 집중해야겠단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육을 넘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시켜주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출판은 학교 교육 이상의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류 대표는 교과서와 학술서적이 교육용 책이란 측면에선 같다고 했다. 교과서에서 그 대상

을 확대시킨 것이 학술서적이라는 것이다. 교문사가 최근 기술·가정 교과서를 개발해 온 것도 식품영양학, 의류학, 가정학 등의 생활과학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풍부한 학술도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과서와 학술도서 간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류 대표는 교과서와 학술도서를 두루 아우르면서 청소년에서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교문사 책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다.

교과서로 교육의 한 축 담당하는 것에 보람

대한민국에서 교과서는 경전처럼 오타 하나, 내용 오류 하나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과정에 있어 기획, 편집, 제작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 수가 줄고 경쟁은 심해지는 등 장애물은 하나 둘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과서 개발 비용까지 높아지고 있어 위험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류 대표도 이런 험난한 여정 때문에 "굳이 교과서 개발에 뛰어들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교문사의 교과서를 쓰는 선생님들로부터 "교과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뿌듯함에 다시 어깨가 펴진다고 한다. 책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오히려 감사인사로 들린단다.

> "교과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생각이 출판업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학생, 독자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한다는 사명감도 갖게 됩니다. 좋은 책, 좋은 교과서를 한 권 한 권 쌓아나가는 것 자체가 제겐 큰 보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보다 즐겁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류 대표의 철학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재밌게 공부하게 하려면 교과서도 재미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관심이 없는 교과목이라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있으면 과목이 좋아진다고 믿고 있었다. 류 대표는 "학생의 흥미를 위해서는 우선 쉬워야 한다. 내용이 쉬운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쉬워야 한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교과서를 통해 수업을 재밌게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을 평가하기 쉬워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 류 대표는 '핵심성취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과서를 통해 습득할 지식의 목표를 제대로 세워야 이에 맞춰 내용을 구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과서는 각 차시에 따른 분량 맞추는데 신경쓰다보니 핵심내용 중심으로 편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류 대표는 또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편집이라고 했다. 그래서 교과서 및 학술서적 편집은 직관적인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이아웃이나 일러스트가 일관되고 단순해 한눈에 내용이 들어와야 합니다. 편집자들은 이렇게 디자인된 국내외 책들을 많이 참고해야 하고요. 교문사는 앞으로 편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해 편집 · 디자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교과서, '플립러닝'에 주목하자.

미래에는 IT 기기를 통한 디지털 수업이 종이책 교과서를 통한 일방향식 오프라인 강의를 대체할 것이란 예측이 있다. 언제 어디서든 단말기만 있으면 동영상 강의와 전자책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굳이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류 대표는 교실이란 공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또는 '거꾸로 교실'이라 불리는 학습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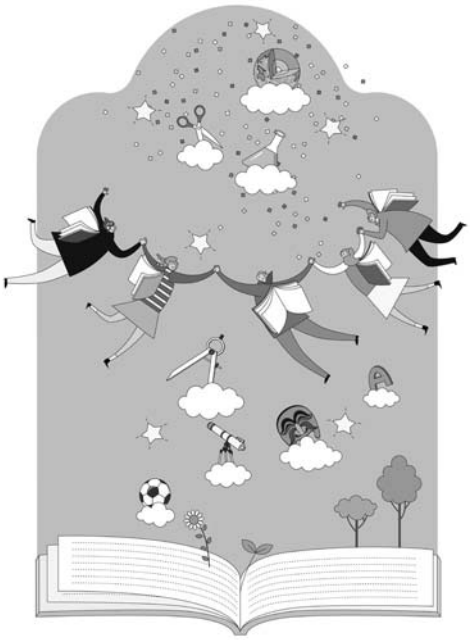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또는 거꾸로 교실 수업은 온라인을 통해 선행학습을 한 뒤 오프라인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토론과 실습 등을 통해 스스로 배워가는 역진행 수업 방식입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흥미와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방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거꾸로 교실'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교과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그 형태와 내용이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다. 교과서는 지식 전달 외에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도록 돕는 윤활제가 돼야 할 것이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도 담당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더해지면서 점점 진화하는 교과서여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고,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류 대표의 말속에서, 앞으로 학계와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수록 교과서는 계속 진화하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제 곧 설립 60주년을 앞둔 교문사는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에 잘했던 교과서 분야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교과목에도 도전이 필요하다. '출판은 곧 교육'이란 창립 이념을 토대로 한국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류제동 대표의 말에서 희망을 찾는다.

"시장성만 보고 출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꼭 필요한 교육용 책은 있어야 합니다. 출판 그 자체로 의미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찾아 차곡차곡 양서를 쌓아 가겠습니다."



⊙교육부고시제2014-70호

검 ·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시 · 도교육감이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을 명령하는 경우, 가격 조정 금액 산정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교육부장관

검 · 인정도서 가격 조정 금액 산정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1. 산정기준

가. 서책형

1) 산정기준

서책형 산정기준			
총원가	제조원가	① 재료비	재료비(물량×단가)
		② 인쇄 · 제조비	인쇄 · 제본비(물량×단가) (고정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제비용	③ 일반관리비	[①+②]×18% 이내
		④ 그 밖의 경비	④-가. (전시본 제작비+전시본 제작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④-나. 폐기도서 제조원가, 저작권 보상금 및 추가생산 원가손실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반영)
		⑤ 출판사 이윤	[①+②+③+④-가]×10% 이내
		⑥ 저작자 인세	[①+②+③+⑤-(④-가×10%이내)]×1/9
		⑦ 도서개발 지원금	(①+②)×1.5%
		⑧ 공급수수료	[①+(②-(개발비+개발비이자)/고정비회수기간)+③+④+⑤+⑥+⑦]×1/16(초등은 1/13로 함)
⑨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⑥+⑦+⑧
⑩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⑨/기준부수×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 산정방식

가) 재료비와 인쇄 제조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재료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와 각 출판사의 구입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다) 인쇄 · 제본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시중거래가격조사, 출판사의 결산자료 분석 및 물가변동 여부 등을 실사 적용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거나 물가변동 등 인쇄시장의 변화로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이 인가된 물가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을 적용함

라) 고정비 :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 · 검토료 등), 슬라이드 대여료, 컷비, 삽화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심의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을 고정비회수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함. 다만, 심의본 제작비는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함

마) 일반관리비 : 재료비와 인쇄 · 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바) 그 밖의 경비 :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전 · 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액,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제작 보급한 전시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이자 포 함)으로 함. 다만, 전시본 제작비를 제외한 그 밖의 경비는 고정비 회수기간 종료 후 일괄반 영하며,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함

사) 출판사 이윤 : 재료비, 인쇄 · 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함

아) 저작자 인세 : 재료비, 인쇄 · 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 작비에 대한 출판사 이윤은 제외)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자) 도서개발 지원금 : 재료비와 인쇄 · 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함

차) 공급수수료 : 재료비, 개발비 및 개발비 이자를 제외한 인쇄 · 제조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및 도서개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카)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 ·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타)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파)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눈 후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 · 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전자저작물(CD형)

1) 산정기준

CD 산정기준			
총원가	제조원가	① CD복제비	CD복제비(물량×단가)
		② CD제작비	(고정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제비용	③ 일반관리비	[①+②]×18% 이내
		④ 그 밖의 경비	저작권 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반영)
		⑤ 출판사 이윤	(①+②+③)×5% 이내
		⑥ 저작자 인세	[①+②+③+⑤]×1/9
		⑦ 공급수수료	(①+③+④+⑤+⑥)×1/16(초등은 1/13로 함)
⑧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⑥+⑦
⑨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⑧/기준부수

2) 산정방식

가) CD복제비와 CD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CD복제비 : 전자저작물을 CD로 복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다) CD제작비 : CD형 전자저작물 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라) 일반관리비 : CD복제비와 CD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마)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바) 출판사 이윤 : CD복제비, CD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사) 저작자 인세 : CD복제비, CD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아) 공급수수료 : CD복제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및 저작자 인세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자)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차)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카)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 ·

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전자저작물(e-교과서)
1) 산정기준

e-교과서 산정기준			
총원가	제조원가	① e-교과서 제작비	[고정비(개발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제비용	② 일반관리비	①×18% 이내
		③ 그 밖의 경비	저작권 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반영)
		④ 출판사 이윤	(①+②)×5% 이내
		⑤ 저작자 인세	(①+②+③+④)×1/9
⑥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
⑦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⑥/기준부수

2) 산정방식
가) e-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e-교과서 제작비 : e-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e-교과서 제작비의 18%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마) 출판사 이윤 : e-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바) 저작자 인세 : e-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아)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자)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 · 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1) 산정기준

디지털교과서 산정기준			
총원가	제조원가	①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고정비(개발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제비용	② 일반관리비	①의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 중 직접노무비 ×110% 이내
		③ 그 밖의 경비	저작권 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반영)
		④ 출판사 이윤	(①+②)×5% 이내
		⑤ 저작자 인세	(①+②+③+④)×1/9
		⑥ 유지보수비	①×5% 이내
⑦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⑥
⑧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⑦/기준부수

2) 산정방식
가)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 중 직접노무비의 110%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마) 출판사 이윤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바) 저작자 인세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유지보수비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의 5% 이내로 함
아)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자)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차)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3.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함

◎ 교육부공고 제2015-49호

「검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교육부장관

「검 ·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조정명령 가격 선정 시 적용하는 기준부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 가격 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부수의 산정 및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고시에 직접 규정

1)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을 신설하고, 서책형 · 전자저작물(CD형) · 전자저작물(e-교과서) ·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의 가격 산정 시,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르도록 함

나.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 신설

1) "바.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을 신설하여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검 · 인정도서 가격 산정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과서정책과, 전화 044-203-6468, 팩스 044-203-6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붙임 : 「검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교육부 고시 제 호

검 ·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검 ·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정기준 가. 서책형 2) 산정방식 중 "파)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으로 한다.
1. 산정기준 나. 전자저작물(CD형) 2) 산정방식 중 "카)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으로 한다.
1. 산정기준 다. 전자저작물(e-교과서) 2) 산정방식 중 "자)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으로 한다.
1. 산정기준 라.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2) 산정방식 중 "차)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으로 한다.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

1) 기준부수 산정

1단계	○ 평균부수 ① 초등 5, 6, 5~6 과목 : ('15학년도 해당과목 총 주문부수)* ÷ ('15학년도 해당과목 검인정 합격 종수) * 단, 초 5~6 음악 및 미술 = {('15학년도 해당과목 총 주문부수) × 2} ÷ 3 ② 초등 3, 4, 3~4 재검인정 과목 : (해당과목 검인정합격 도서의 '15학년도 총 주문부수) ÷ ('14학년도 해당과목 검인정 합격 종수) ③ 고등 2 3학년 재검인정 과목 : {(동일 유사과목 최근 3년 총 주문부수) ÷ 3년} ÷ '14학년도 해당과목 검인정 합격 종수

⇩

2단계	**○ Ⅰ안(평균부수 적용 기준부수)** - 산식 : (1단계 평균부수에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부수)-(절사단위 적용 부수×3.5%)-(절사단위 적용 부수×연평균 학생수 감소율)**(증가학년 미적용)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기준]** 부수기간 / 10천부 미만 / 50천부 미만 / 100천부 미만 / 100천부 이상 절사단위 / 100 / 1,000 / 5,000 / 10,000 ** 초등 : 5학년 2.3%↓, 6학년 5.9%↓, 5~6학년 3.3%↓ 고등 : 3.7%↓
	○ Ⅱ안(실제발행부수 반영 기준부수) - 산식 : (실제발행부수)-(실제발행부수×18.5%)-(실제발행부수×연평균 학생수 증△감율*) * 초등 : 3학년 1.7%↑, 4학년 7.3%↑, 3~4학년 1.7%↑, 5학년 2.3%↓, 6학년 5.9%↓, 5~6학년 3.3%↓ 고등 : 3.7%↓

2) 기준부수 적용

가) 실제발행부수가 평균부수 이상인 경우 : 실제발행부수 적용 정가총액 ÷ 최대값(2단계 Ⅰ안, 2단계 Ⅱ안 중)

나) 실제발행부수가 평균부수 미만인 경우 : 1단계 평균부수에 대한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기준부수에 따른 정가총액 ÷ 2단계 Ⅰ안 기준부수

"바.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

o 이 고시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교과용도서 가격 산정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단, 제출된 자료는 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산정기준 가. 서책형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타) 파)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눈 후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 산정기준 가. 서책형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타) 파)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눈 후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1. 산정기준 나. 전자저작물(CD형)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차) 카)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 산정기준 나. 전자저작물(CD형)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차) 카)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1. 산정기준 다. 전자저작물(e-교과서)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아) 자)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 산정기준 다. 전자저작물(e-교과서)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아) 자)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1. 산정기준 라.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자) 차)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 산정기준 라.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자) 차)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신 설)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 1) 기준부수 산정 (별첨 표 참고) 2) 기준부수 적용 가) 실제발행부수가 평균부수 이상인 경우 : 실제발행부수 적용 정가총액 ÷ 최대값(2단계 Ⅰ안, 2단계 Ⅱ안 중) 나) 실제발행부수가 평균부수 미만인 경우 : 1단계 평균부수에 대한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기준부수에 따른 정가총액 ÷ 2단계 Ⅰ안 기준부수
(신 설)	바.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 ○ 이 고시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교과용도서 가격 산정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단, 제출된 자료는 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함

[별첨] 1) 기준부수 산정

1단계	○ 평균부수 ① 초등 5, 6, 5~6 과목 : ('15학년도 해당과목 총 주문부수)* ÷ ('15학년도 해당과목 검인정 합격 종수) * 단, 초 5~6 음악 및 미술 = {('15학년도 해당과목 총 주문부수) × 2} ÷ 3 ② 초등 3, 4, 3~4 재검인정 과목 : (해당과목 검인정합격 도서의 '15학년도 총 주문부수) ÷ ('14학년도 해당과목 검인정 합격 종수) ③ 고등 2 3학년 재검인정 과목 : {(동일 유사과목 최근 3년 총 주문부수) ÷ 3년} ÷ '14학년도 해당과목 검인정 합격 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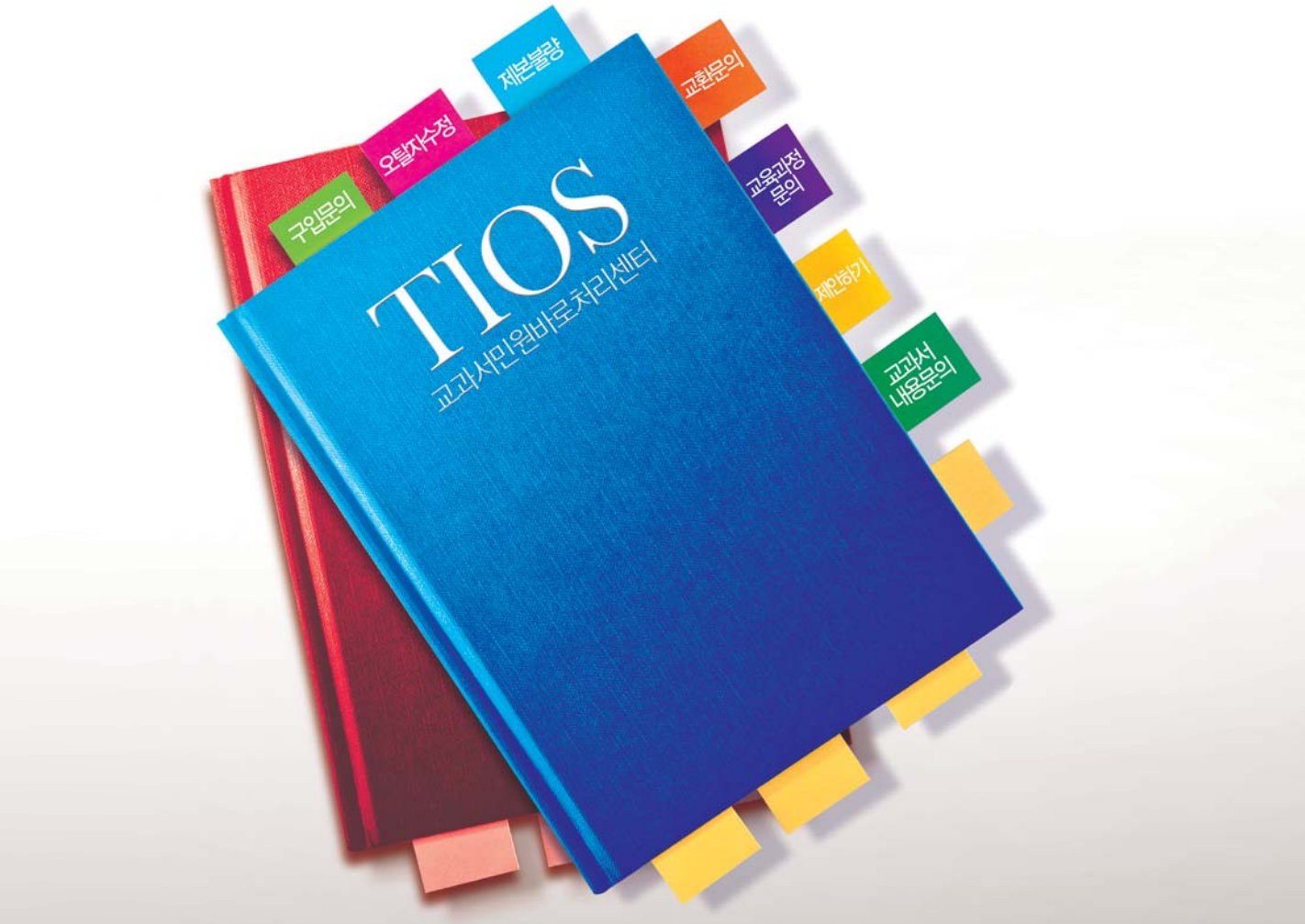
⇩

2단계	**○ Ⅰ안(평균부수 적용 기준부수)** - 산식 : (1단계 평균부수에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부수)-(절사단위 적용 부수×3.5%)-(절사단위 적용 부수×연평균 학생수 감소율)**(증가학년 미적용)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기준]** ** 초등 : 5학년 2.3%↓, 6학년 5.9%↓, 5~6학년 3.3%↓ 고등 : 3.7%↓
	○ Ⅱ안(실제발행부수 반영 기준부수) - 산식 : (실제발행부수)-(실제발행부수×18.5%)-(실제발행부수×연평균 학생수 증△감율*) * 초등 : 3학년 1.7%↑, 4학년 7.3%↑, 3~4학년 1.7%↑, 5학년 2.3%↓, 6학년 5.9%↓, 5~6학년 3.3%↓ 고등 : 3.7%↓

부수기간	10천부 미만	50천부 미만	100천부 미만	100천부 이상
절사단위	100	1,000	5,000	10,000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는 어디서 사야 하지? 교과서 불량은 어디 가서 신고하지?
사소한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셨나요? 교과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포털사이트, TIOS를 방문하세요.
교과서에 관한 문의부터 오탈자 수정, 제본불량 신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까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약속 드립니다.

교과서 민원 처리는 Yes, TIOS!

● TIOS란?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관련 민원 업무의 One-stop 처리가 가능한 교과서 관련 포털 사이트입니다.

● TIOS이용방법

TIOS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566-8572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http://www.kotry.kr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이제 교과서 원문 D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정보관

교과서 원문 이용안내

메인페이지 원문검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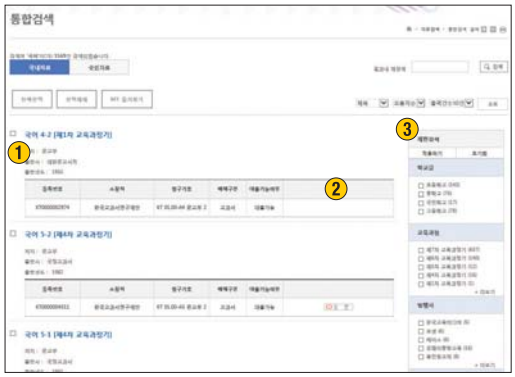
① **페이지 주소창** - https://www.kotry.kr를 통해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

② **도서관 협약유무 확인** - 협약도서관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으며, 메인페이지에서 협약도서관 안내를 통해 원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도서관안내 > 교과서정보협력망 > 협약도서관안내)

③ **검색어 입력** - 원하는 교과서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 (ex. 국어, 검정, 6차교육과정 등)

④ **원문검색** - 원문만 검색결과에서 보고 싶은 경우, 간략서지정보 화면의 제한검색에서 '원문'의 '있음'을 체크한 후 상단의 '적용하기'를 선택.

검색결과 간략화면 안내



① **간략서지정보** - 결과가 보여지는 결과 화면. 원문이나 목차 등의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가능여부 옆에 목차/원문/참고문헌 아이콘이 게재됨.

② **원문 아이콘** - 원문이 존재하는 서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도서의 원문을 볼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③ **제한검색(Facet)** - 키워드 등을 통한 검색결과에서 학교급, 교육과정, 발행사, 저자별, 년도별, 원문 유무 등으로 검색결과를 제한하여 볼 수 있음.

검색결과 상세화면 안내

① **상세검색 결과** - 간략서지정보에서 선택한 서지의 상세내용이 보여지는 화면.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 및 MARC보기, 즐겨찾기 추가, 자료예약 등이 가능함.

② **소장 정보** - 해당 서지의 소장자료 정보 확인. 등록번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등 확인 가능.

③ **유사컨텐츠** - 해당 도서와 유사한 컨텐츠를 모아서 볼 수 있으며, 자료명을 선택하면 해당 도서 정보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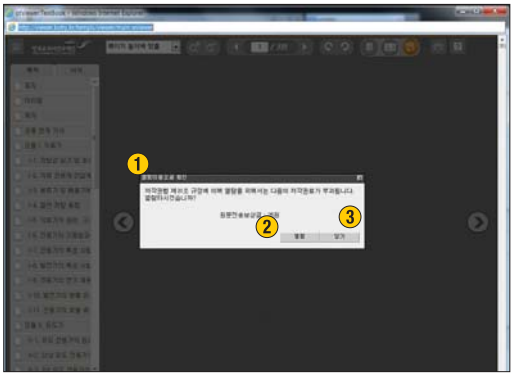
④ **부가정보** - 목차, 초록 등의 부가정보를 보여준다.

원문이용시 이용요금 확인

① **열람이용요금 확인** - 원문 선택시 저작권법 안내,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 확인.

② **열람**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을 안내 받고 지불의사가 있을 경우 '열람'을 선택하여 원문을 열람.

③ **닫기**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을 안내 받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닫기'를 선택하여 창을 닫음.



원문뷰어 이용

① **목차 및 서지정보** - 원문의 목차 및 서지정보표시 (목차 선택시 해당 페이지 이동)

② **화면배율 선택** - 페이지 높이에 맞춤/페이지 너비에 맞춤/50%/100%/200%/300% 선택

③ **확대/축소** - 원문 이미지 확대 및 축소

④ **페이지 이동**
- 이전 페이지 (◀) /다음 페이지 (▶) 이동
- 해당 페이지 직접 이동시 페이지 번호 입력 후 엔터

⑤**회전** - 원문 이미지 회전(좌우 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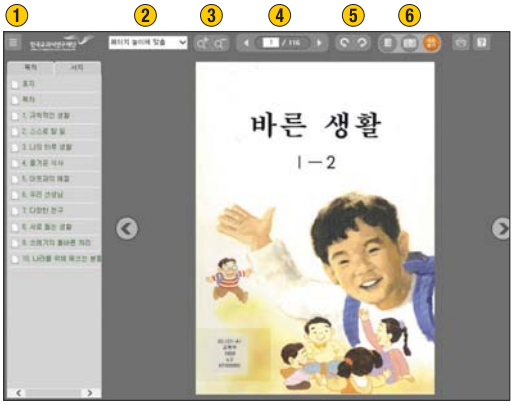
⑥**보기 설정** - 원문 이미지 페이지 보기 설정 *단면보기/양면보기/세로보기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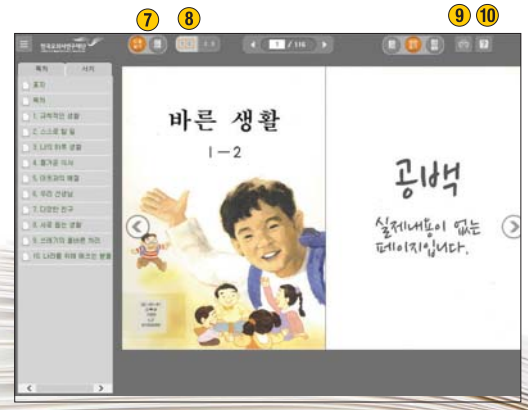
⑦**제본 설정** - 원문 이미지 제본 설정
* 좌철보기/우철보기 선택

⑧**제본페이지 설정** - 원문 이미지 좌우 정렬설정 변경

⑨**도움말** - 통합 뷰어 이용 안내

⑩**인쇄** - 원문 이미지 출력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서비스 원문 협약 체결 안내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구축한 원문DB를 이용하기 위한 교과서정보서비스의 원문 협약 절차 안내입니다.
-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교과서 전문도서관 구축 사업을 통해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의 원문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 까지의 교과서(4,850권)를 원문 DB화 하여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통해 서비스 중 입니다.

대 상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자료실), 학교도서관 등

협약 절차 안내

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협약 체결
② 협약 완료 후 재단으로 이메일 통보 또는 협약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유순기, 02-6206-6357, editor@textbook.ac)
③ 공문서에 의한 협정방식을 원하는 기관은 담당자에게 협약서 및 등록서 전송 요청
④ 협약서 및 등록서를 작성 후 재단 관리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http://www.kotry.kr/libfee/)에 접속하여 도서관기호 및 등록서에 작성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⑥ 사용하고자 하는 좌석의 IP정보를 입력 후 담당자에게 통보

참 고

○ 기관 내에서 비공인IP(사설IP)를 사용하는 경우, 공인IP 및 비공인IP를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원문 뷰어는 별다른 설치 과정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쇄를 하고자 할 경우 과금을 위한 activeX 설치가 필요합니다.)
○ 개인납부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자체 프린터 기기 및 과금장치업체와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관리자가 기관 및 IP정보를 확인 후 접속에 대한 허용을 하여야 원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단 및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수원박물관, 신라대학교, 목원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한국스포츠개발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에 교과서 개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과정 소개

○ 과정명 :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전문성 향상 과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년도 특수 분야 연수 기관 지정(추진 중)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 대상 :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 시간 : 30시간(인정 학점 : 2학점)
※ 최저 이수 기준 시간 : 24시간, 80% 이상 출석(성적 산출 안함)

○ 교과과정 : 교과서 정책·제도와 법령, 개발 방법, 편집 및 인쇄 등
2016년도 동계연수(2016년 1월중)의 기간 및 일정은 2015년 하반기중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2015년 하계 연수는 개설되지 않음)

□ 기간 :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신청 마감
제 1 기	2016. 1. 5 ~ 1. 9(예정)	10:00~17:00	40	현재 모집중
제 2 기	2016. 1. 12 ~ 1. 16(예정)	10:00~17:00	40	현재 모집중

□ 신청 방법

○ 직무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2651-1982)로 접수

○ 연수비 납부
- 연수비 : 7만원
- 납부 방법 : 해당 과정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신한 140-009-109202, 예금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지한)

※ 연수비 환불조건 : 연수 시작 10일 전까지 연수취소(포기)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과서 개별구입안내

2015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교 과 서			구입처	전화번호
국정	초등	• 국어(국어활동, 듣기 · 말하기 · 읽기, 쓰기 포함) • 과학(실험관찰 포함)	㈜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 수학(수학익힘책 포함) • 사회(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포함) • 도덕(생활의길잡이 포함)	㈜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통합과목(학교, 봄, 가족, 여름, 나, 이웃, 가을, 겨울, 우리나라)	㈜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고등	• 체육계, 수산 · 해운계	㈜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외국어계	㈜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가사 · 실업계	㈜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검 · 인정	초등 중등 고등	• 위 교과서 이외의 검 · 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일부 제외)	(사)한국검인정교과서 www.ktbook.com	031-8071-7981

□ 서울지역 직매장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주)미래엔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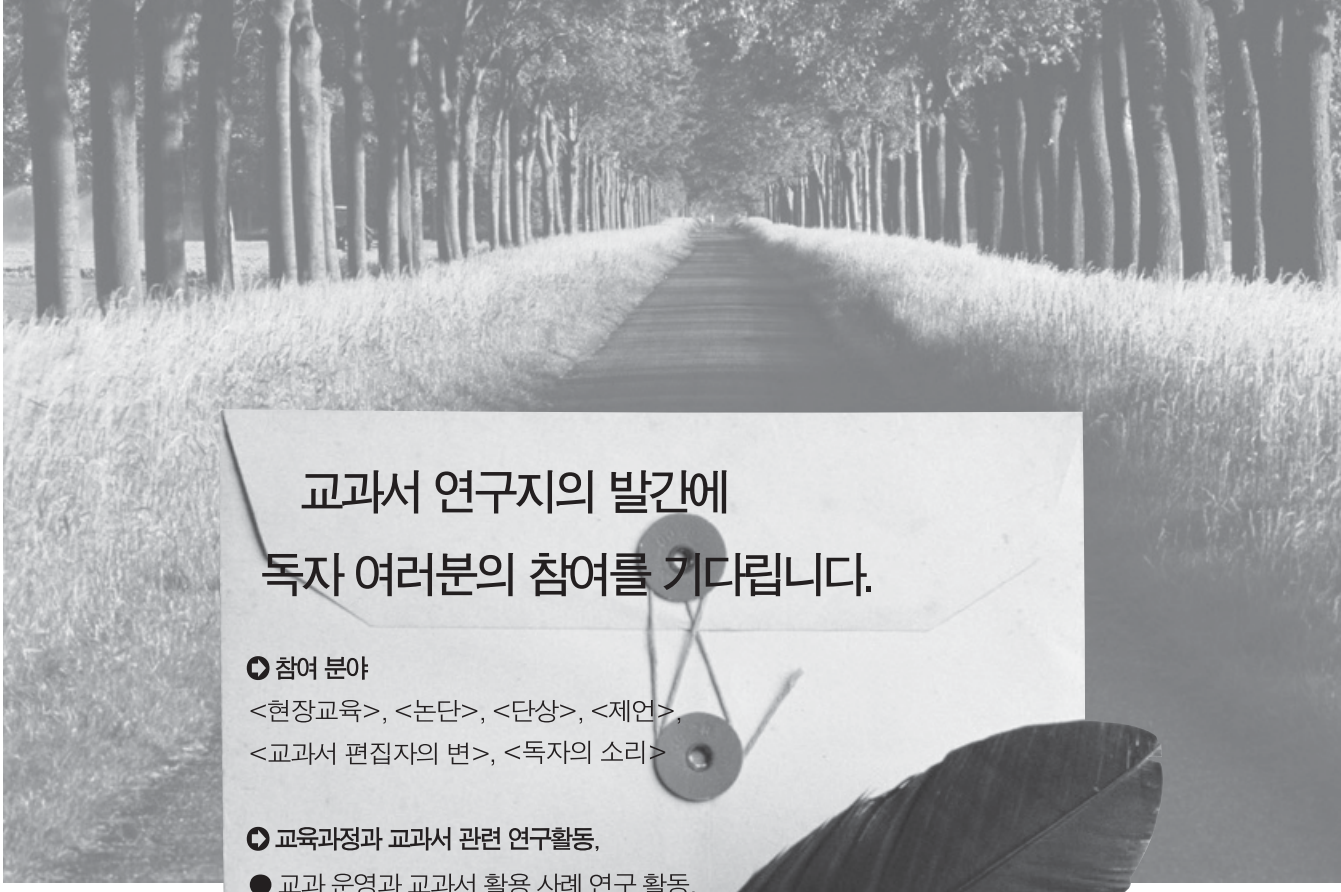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서점

지역별		상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광화문)	02- 397-3441	국·검·인정
	서초구	㈜교보문고(강남)	02-503-0311	국정
	송파구	㈜교보문고(잠실)	02-2140-8822	국정
	양천구	㈜교보문고(목동)	02-2062-8801	국정
	영등포구	㈜교보문고(영등포)	02-2678-3501	국정
	종로구	㈜영풍문고(종로)	02- 399-5625	국·검·인정
	성북구	㈜영풍문고(미아)	02-2117-2880	국정
	영등포구	㈜영풍문고(여의도)	02-6137-5253	국정
	동대문구	㈜영풍문고(청량리)	02-3707-1863	국정
	노원구	그랜드문고	02-938-1065	국정
	서초구	서울문고(센트럴점)	02-530-0718	국정
	강남구	서울문고(코엑스점)	02-556-6002	국정
	강남구	㈜영풍문고(코엑스점)	02-6002-2707	국정
	강동구	예림문고	02-477-8600	국정
	도봉구	예일문고	010-9769-0428	국정
	성동구	경일사	02-2296-7671	검·인정
	중구	㈜리브로(구로점)	070-4726-2841	국·검·인정
	동대문구	성현문고	02- 967-3838	검·인정
	강남구	반디앤루니스	02-6002-6021	검·인정
	용산구	㈜대교문고	02-2012-3544	국·검·인정
	노원구	㈜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국·검·인정
	강동구	동북문고	02-477-8200	국·검·인정
	관악구	㈜북션커뮤니케이션	070-4700-1975	국정
	중랑구	관악도서	02-2207-7802	국정
부산	금정구	영풍문고	051-590-8300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	051-731-3601	국정
	부산진구	영광도서	051- 816-9500	국·검·인정
	사하구	문학서점	051- 204-0465	국·검·인정
	사하구	예림서적	051- 203-3383	검·인정
	중구	남포문고	051- 245-8911	검·인정
	중구	문우당서점	051-241-5555	국정
	사상구	태학도서	051-313-1718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703-0708	국정
대구	중구	영풍문고	053-428-6700	국정
	수성구	㈜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423-0517	국·검·인정
인천	부평구	부평문고	032-529-0077	국정
	부평구	교보문고	032-455-1000	국정
광주	서구	영풍문고	062-364-0210	국정
	동구	종합도서	062- 222-8524	국·검·인정
대전	중구	㈜계룡문고	042- 222-4600	국·검·인정
	서구	세이북 tm	042-611-8061	국정
세종	세종	세이북스	044-864-4433	국정
울산	울산	영풍문고	052-228-1051	국정

지역별		상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경기	수원	㈜경기서적	031- 248-6300	국·검·인정
	의정부	숭문당	031- 846-2666	국·검·인정
	안산	대동서적(주)	031- 406-6666	국·검·인정
	부천	㈜경인문고	032- 613-2197	국·검·인정
	구리	동원서적	031- 563-4621	국·검·인정
	일산	정글북	031- 922-5000	국·검·인정
	평택	평택문고	031- 651-9204	국·검·인정
	분당	리브로	070-4726-2886	국정
	광명	일지서적	02-2613-2744	국정
	안양	교보문고	031-466-3501	국정
	성남	베스트북	070-7570-5172	국정
	용인	수지문고	031-265-4031	국정
	성남	중원문고	031-736-2600	국정
	수원	영풍문고	031-267-5555	국정
	시흥	한가람문고	031-404-0161	국정
	화성	더북스삼성	031-8015-4451	국정
	성남	공손서점	031-703-7279	국정
	김포	열린문고	031-982-2007	국정
강원	춘천	교학사	033- 244-0044	국·검·인정
	동해	제일서점	033-254-4133	국정
충북	청주	유신상사	043- 252-5945	국·검·인정
	충주	이학사	043-847-3493	국정
충남	천안	열린문고	041- 573-0827	검·인정
	천안	천안서적	041- 578-1545	검·인정
	천안	국민도서	041-558-0004	국정
전북	전주	홍지서림	063- 288-5311	국·검·인정
전남	순천	중앙서림	061- 723-9902	국·검·인정
	목포	책사랑문고	061-279-2504	국정
경북	포항	학원사	054- 249-3396	국·검·인정
	경산	성암교재사	053-811-8222	국정
	경주	현대서점	054-774-3338	국정
경남	창원	그랜드문고	055- 283-2848	검·인정
	창원	창원서적	055-282-1544	국정
	김해	근비서점	055-343-7893	국정
	마산	영풍문고	055-240-5690	국정
	진주	대양서적	055-741-2835	국정
제주	제주	탐라도서(주)	064- 755-3335	검·인정
	제주	현대서점	064-748-1177	국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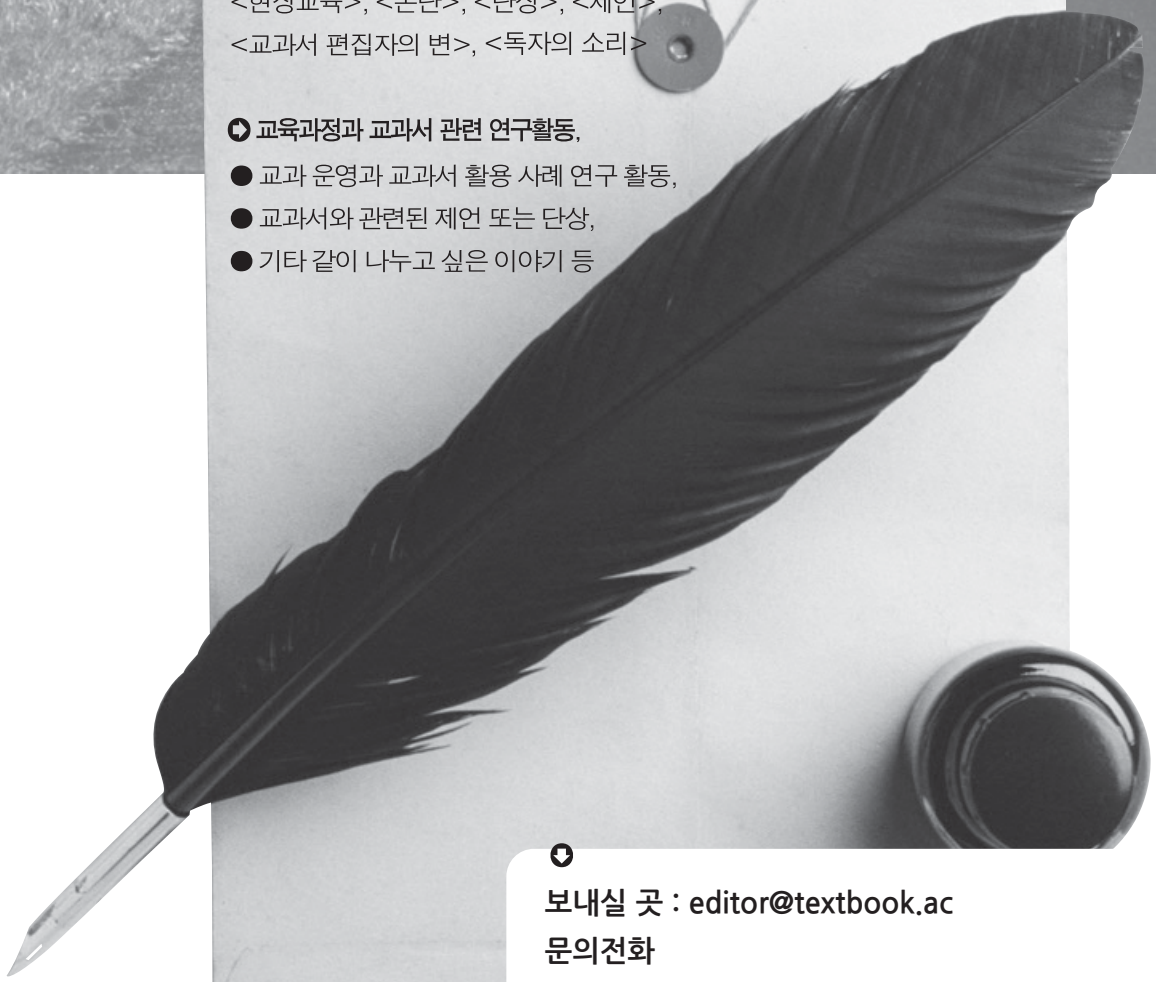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ditor@textbook.ac

문의전화

02-6206-6357 「교과서연구」 담당자 유순기

모두가 1등이 되는 세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엄마, 독도에 코끼리가 살아요.
코끼리바위가 괭이갈매기를 매일 업어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독도엔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교과서로 배웁니다.
우리의 독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독도 사랑도, 독도 공부도 우리가 1등입니다.

천재교육

1948년
교과서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2015년
교육, 출판 및 국내외 인쇄사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 출판 문화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엔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검정교과서, 참고서, 파사쥬논술

교과서사업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출판사업
아이세움, 북폴리오, 와이즈베리

인쇄사업
국내·해외인쇄, 디지털인쇄

계열사
전북도시가스, 미래엔서해에너지, 현대문학, 미래엔에듀케어,
미래엔인천에너지, 부흥개발, 목정문화재단, 목정미래재단

교과서 박물관 TEXTBOOK MUSEUM

www.mirae-n.com

사람을 키웁니다, 미래를 키웁니다 MiraeN